

안수기도반 교재

성경적 안수기도 완벽 정리



테이브리 목사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A group of men in traditional robes, possibly biblical figures, standing in a room with stone walls and a striped rug. The scene is dimly lit, with a warm, golden light source from the left. The men are wearing long, flowing robes in shades of beige and brown. Some have beards and long hair. They are standing in a line, looking down or towards the right. The background shows a stone wall and a wooden beam.

목차 CONTENTS



제 1 장 안수기도의 성경적 원리 _ 5

제 2 장 안수를 통한 능력 전이 _ 34

제 3 장 축복 안수 _ 107

제 4 장 치유와 회복의 안수 _ 132

제 5 장 안수기도의 실제와 적용 _ 188

제 6 장 안수기도의 미래와 비전 _ 207

제 7 장 안수기도문 모음 _ 225





1 장

/

안수기도의 성경적 원리

제 1 장 안수기도의 성경적 원리

훈련 목적

- * 안수의 원어적 의미와 성경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 *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안수의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파악한다
- * 안수의 신학적 의미와 영적 원리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 * 건전한 안수기도 사역의 기초를 확립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디모데후서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보조 구절: 마가복음 16:18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1. 안수의 원어적 이해

가. 구약의 사마크(סמך)

1) 어원과 기본 의미

- 히브리어 '사마크'는 '손을 얹다', '기대다', '의지하다', '지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손을 올려놓는 행위를 넘어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사마크의 어근은 견고함과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 구약에서 사마크가 사용된 첫 번째 예는 레위기 1:4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안수는 제물과 예배자 사이의 동일시를 나타내며, 죄의 전가와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2) 영적 전달의 의미

- 사마크는 또한 영적인 것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7:18-20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 여기서 안수는: 영적 권위의 이양과 모세의 권위

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 신약의 에피티데미(ἐπιτίθημι)

1) 어원과 의미 확장

- 헬라어 '에피티데미'는 '에피(ἐπί, 위에)'와 '티데미(τίθημι, 놓다)'의 합성어로 '위에 놓다', '부과하다', '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케이르 에피티데미(χεῖρας ἐπιτίθημι)' 즉 '손을 얹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 이 단어는 구약의 사마크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특별히 축복, 치유, 성령 전달, 임직 등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18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여, 안수가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는 가시적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2) 신약 시대의 독특한 발전

- 신약 시대에 안수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첫째, 그리스도의 권위 행사: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눅 13:13).
- 둘째, 성령의 통로: 오순절 이후 안수는 성령의 은

사를 전달하는 주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행 8:17).

- 셋째, 교회의 권위 부여: 초대교회는 안수를 통해 직분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3).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수

가. 축복의 안수 - 족장 시대

1) 야곱의 축복 안수 (창세기 48장)

- 구약에서 가장 감동적인 안수 장면 중 하나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안수의 여러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창 48:14).
- 이 안수에서 주목할 점들:
 - 의도적 선택: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엮갈려 놓았습니다
 - 예언적 통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 권위의 행사: 족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 불가역적 효력: 한 번 선포된 축복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 야곱은 안수하며 선포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창 48:15-16).

2) 축복 안수의 영적 원리

- 족장들의 축복 안수는 단순한 좋은 소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 첫째, 언약적 축복의 전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이 안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 둘째, 예언적 선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샘 곁의 열매 맺는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
 - 셋째, 영적 유산의 상속: 물질적 유산뿐 아니라 영적 권위와 책임이 전달되었습니다.

나. 위임의 안수 - 지도력 이양

1)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27:18-23)

-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지도력 이양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안수 사건 중 하나입니다.
-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임하되"(민 27:22-23).
- 이 안수의 결과는 신명기 34: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민 27: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 27: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민 27:20] 네 손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민 27: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민 27: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민 27: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 레위인 위임식 (민수기 8:10)

-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 특이하게도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것은:
 -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함을 나타냄
 - 백성들이 레위인의 사역을 인정하고 지지함을 표현
 -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대표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됨

다. 속죄의 안수 - 죄의 전가

1) 제사 제물에 대한 안수

-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 이라”(레 1:4).
- 제사 제물에 대한 안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일시되고 전가되며 대속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동일시(Identification): 예배자가 제물과 하나가 됨을 나타냅니다. 제물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 전가(Transfer): 죄가 예배자에게서 제물에게로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레 16:21).
 - 대속(Substitution):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2) 안수의 거룩성과 엄중함

- 구약의 안수는 매우 거룩하고 엄중한 행위였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수를 행할 때

도 경외심과 진지함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3. 신약성경의 안수 원리

가. 예수님의 안수 사역

1) 치유의 안수

-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권위의 표현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a) 다양한 질병의 치유

-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눅 4:40).
-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병자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일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대량 치유가 아니라 개인적 만남과 치유였습니다.

b) 문둥병자에 대한 혁명적 안수

-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

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막 1:40-41).

- 이 안수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 율법의 금기를 깨뜨림: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3:45-46은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금혈의 손길: “불쌍히 여기사”(σπλαγχνίζομαι)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긍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회복의 선언: 예수님의 안수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문둥병자는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즉각적 치유: “즉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막 1:42). 예수님의 안수에는 즉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c) 소경의 단계적 치유

-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막 8:23).

- 흥미롭게도 이 경우는 두 번의 안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수 후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하자,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막 8:25).
- 이것은:
 - 치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 각 사람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2) 축복의 안수

a) 어린이들을 축복하심

-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 제자들이 막으려 했던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은:
 -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 축복의 안수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b) 승천 시 제자들 축복

-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눅 24:50-51).
-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가 축복의 안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적 축복이었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안수였습니다.

3) 회복의 안수

a) 베드로 장모의 치유

-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 8:15).
- 단순한 손의 접촉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 귀 잘린 말고를 고치심

-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눅 22:51).

- 체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원수의 귀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 폭력이 아닌 치유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 마지막까지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사도들의 안수 사역

1) 성령 받음을 위한 안수

a) 사마리아에서의 안수

-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행 8:17).
- 빌립의 전도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 안수가 성령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교회의 일치를 위한 사도적 권위의 행사였습니다
 - 단계적 구원 경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b) 바울이 에베소에서

-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6).
-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제자들이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2) 치유를 위한 안수

a)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행 9:17).
- 일반 신자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 안수의 권위가 직분이 아닌 성령의 보내심에 있음
 -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 치유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남

b) 바울이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 "보블리오 아버지께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행 28:8).

- 바울은 기도와 안수를 함께 행했습니다. 기도 없는 안수는 의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3) 임직과 파송을 위한 안수

a) 일곱 집사 안수

- “이 말이 온 무리의 마음에 합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하니라”(행 6:5-6).
- 교회 최초의 임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안수
 - 봉사의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안수
 - 공동체의 인정과 사도의 권위가 결합된 안수

b)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

-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 선교사 파송의 모델이 되는 안수입니다:
 - 성령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안수
 - 교회의 파송과 지지를 나타내는 안수
 - 영적 권위와 보호를 위한 안수

4. 안수의 신학적 의미

가. 동일시와 연합의 원리

1) 영적 동일시(Spiritual Identification)

-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영적 동일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 구약의 제사에서 안수자가 제물에 손을 얹을 때, 그는 제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레 4:4). 이 순간 제물의 죽음은 곧 안수자의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바울이 병자에게 안수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치유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인 교회가 안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2) 언약적 연합(Covenantal Union)

- 안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표현합니다. 임직 안수를 받는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연합하게 됩니다.

- “너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 곧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딤후 4:14). 디모데가 받은 안수는 장로회를 통한 것으로,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나. 전이와 임파테이션의 원리

1) 능력의 전달(Power Transfer)

- 안수를 통해 영적 능력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신 34:9). 모세의 안수를 통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 인격적 만남을 통한 전달입니다
 -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전달입니다
 - 목적이 있는 전달입니다 (지도력을 위한 지혜)

2) 은사의 활성화(Activation of Gifts)

-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통해 받은 은사를 “다

시 불일듯 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 ‘아나조퓨레오(ἀναζωπυρέω)’는 ‘다시 불붙이다’, ‘불을 되살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 은사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의도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안수받은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다. 권위의 위임과 축복의 통로

1) 영적 권위의 부여

- 안수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공식적 행위입니다. 이 권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 “급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딤후 5:22).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준 것은 안수가 권위를 부여하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통해:
 - 사역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 교회의 공적 인정이 주어집니다
 - 영적 책임이 위임됩니다

2) 축복의 통로(Channel of Blessing)

-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2-27).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 가시적 표현과 영적 실재

1) 보이지 않는 것의 가시화

- 안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성례적 행위입니다. 성령의 역사, 권위의 부여, 은사의 전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안수라는 가시적 행위를 통해 표현됩니다.
-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 지라"(행 8:17).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안수라는 가시적 행위를 통해 성령을 받는 순간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2) 믿음의 접촉점(Point of Contact)

- 안수는 믿음이 발현되는 접촉점이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안수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합니다.
-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막 5:27-28).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은 믿음의 접촉
점이었듯이, 안수는 믿음이 집중되는 순간을 제공
합니다.

5. 안수기도의 기본 지침

가. 안수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 영적 준비

a) 개인적 성결

- 안수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가?
 - 누구와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교만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없는가?
 - 순수한 동기로 섬기려 하는가?
-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성찬과 마찬가지로 안수도 거룩한 행위이므로 자기 성찰이 필요 합니다.

b) 기도와 금식

- 중요한 안수 사역 전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안수받을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했는가?
 -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는가?
 - 필요시 금식하며 준비했는가?
 - 말씀으로 무장했는가?
-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안수받는 자의 준비

a) 믿음의 확인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 안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가?
-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b) 회개와 정결

- 알고 있는 죄를 고백했는가?
-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는가?

3) 환경적 준비

a) 장소와 분위기

-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인가?
-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 필요한 경우 찬양과 기도로 분위기를 준비했는가?

b) 증인과 보호

- 이성간 안수 시 동성의 증인이 있는가?
-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경인가?
- 교회의 권위 아래 행하는가?

나. 안수의 자세와 마음가짐

1) 겸손과 경외

- 안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 겸손한 자세로:
 - 자신은 단지 통로일 뿐임을 인식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
 - 교만하거나 과시하지 않음
- 경외하는 마음으로:
 - 거룩한 행위임을 인식
 - 함부로 하지 않음
 -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

2) 사랑과 긍휼

-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막 1:41).
- 예수님의 안수는 항상 긍휼에서 나왔습니다.
 -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 그의 필요를 깊이 공감하는 마음
 - 섬기려는 종의 마음

3) 믿음과 권위

-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요 14:12).
- 담대한 믿음으로:
 -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
 - 의심하지 않고 선포함
 - 성령의 능력을 신뢰함
- 영적 권위를 가지고: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
 - 악한 영들을 대적함
 -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

다. 안수 시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1) 성경적 주의사항

a) 성급한 안수 금지

- "급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딤후 5:22).
 - 충분한 검증 없이 임직 안수하지 않기
 - 영적 분별 없이 함부로 안수하지 않기
 -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기

b) 분별의 필요

-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요일 4:1).
 - 성령의 역사와 다른 영의 역사를 분별
 - 참된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
 - 열매로 판단하기

2) 윤리적 지침

a) 이성간 안수 주의

- 가능한 동성이 안수하도록 함
-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증인과 함께
- 머리카락 어깨에만 손을 얹음
- 오해받을 행동을 피함

b) 투명성 유지

- 은밀한 장소에서 단독 안수 피함
 - 교회의 허락과 지도 아래 행함
 - 안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함

3) 피해야 할 잘못된 관행

a) 미신적 요소

- 안수를 마술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 특별한 느낌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않기
- 안수자를 우상화하지 않기

b) 물질적 동기

- 안수와 헌금을 연결시키지 않기
- 안수를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기
- 순수한 동기만으로 행하기

c) 과도한 행위

- 세계 누르거나 흔들지 않기
- 강제로 넘어뜨리지 않기
-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6. 실습과 적용

가. 안수기도 Q&A

질문 1: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수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믿는 자가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17-18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임직 안수나 교회의 권위가 필요한 안수는 해당 직분자가 해야 합니다.

질문 2: 안수할 때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효과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안수의 효력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무 느낌 없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낌보다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질문 3: 안수받고 쓰러지는 것은 성경적인가요?

답변: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쓰러진 예들이 있습니다(계 1:17, 행 9:4). 그러나 이것이 안수의 필수 현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 변화와 열매입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 4: 안수기도 후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답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위해 세 번 기도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였습니다(고후 12:8-9).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질문 5: 불신자에게도 안수기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부한다면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 묵상과 토론 질문

1) 개인 묵상

- 당신은 안수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안수하신 것처럼, 당신이 '만지기' 꺼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 안수는 영적 전달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 디모데후서 1:6의 말씀처럼, 당신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니까?

- 안수 사역을 위해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
입니까?

2) 그룹 토론

-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안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오늘날 교회에서 안수가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이
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안수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수를 통한 영적 전이를 믿습니까? 성경적 근거
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 우리 교회에서 안수 사역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 장

/

안수를 통한 능력전이

제 2 장 안수를 통한 능력전이

훈련 목적

- * 영적 전이(Spiritual Impartation)의 성경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한다
- * 안수를 통해 전달되는 영적 능력과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 능력 전이의 조건과 과정을 실제로 습득한다
- * 성령충만 안수기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신명기 34:9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

보조 구절: 디모데후서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1. 영적 전이(Spiritual Impartation)의 성경적 근거

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신명기 34:9)

1) 전이의 배경과 필요성

a)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들을 이끌어 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그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선지자였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행한 능력의 사람이었으며,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낸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언제 움직일까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중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이런 모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b) 여호수아의 준비 과정

-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습니다(출애굽기 24:13). 그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산 중턱에서 기다렸습니다.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출애굽기 33:11).
- 여호수아는 또한 실전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르비딴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고(출애굽기 17:9-13),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민수기 14:6-9). 그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충실하게 섬기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왔습니다.

c) 영적 권위 전달의 필요성

- 그러나 아무리 여호수아가 준비되었다 해도, 모세가 가진 영적 권위와 능력 없이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

처럼 따를지가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불평하고 반역했던 고집 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은 모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직위 승계가 아니라 영적 능력의 전달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31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2) 안수를 통한 전이의 과정

a) 하나님의 구체적 명령

- 민수기 27:18-20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 전달의 방법으로 '안수'

를 명확히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고, 꿈이나 환상으로 능력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안수를 통해 능력을 전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전달의 공식적인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b) 공개적 시행의 의미

- 하나님은 또한 이 안수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첫째,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모세가 선택한 정당한 후계자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왜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끄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가 보았다.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 둘째, 영적 증인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 권위를 대표했고,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의식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격은 하늘과 땅에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 셋째, 집단적 수용과 순종의 약속입니다. 백성들이 이 안수를 목격함으로써, 그들은 암묵적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 의식은 공동체 전체를 참여시키고 헌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c) 존귀의 전달 과정

-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 ‘호드’는 왕의 위엄, 광채,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마치 왕이 왕관과 홀을 물려주듯이, 모세는 자신의 영적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 이 전달은 점진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고 했지만, 신명기 34:9에서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의 영적 권위와 능력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영적 현상이었지만 동시에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3) 전이의 결과와 증거

a) 즉각적인 변화

- 신명기 34:9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안수하였으므로'라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수가 원인이 되어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초자연적 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그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여호수아 1:11)고 선포했습니다.

b) 백성들의 즉각적 순종

-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고집

센 백성들이 즉시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여호수아 1:16)라고 맹세했습니다.

-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의 안수를 통해 전달된 영적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를 느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알았습니다.

c) 초자연적 기적들

- 여호수아가 행한 기적들은 모세의 기적과 맞먹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입니다(여호수아 3장).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수준의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요단강이 추수 때라 물이 가득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기적입니다.
- 둘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기적입니다(여호수아 6장). 견고한 성벽이 나팔 소리와 외침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 셋째,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입니다(여호수아 10:12-14).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것은 모세도 행하지 못한 우주적 규모의 기적이었습니다.

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열왕기하 2:9-15)

1) 갑절의 영을 구함

a) 엘리사의 대담한 요청

-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날이 가까워왔을 때, 그는 제자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것은 영적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의 기회였습니다. 엘리사는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 '갑절의 영'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보다 두 배나 위대해지고 싶다는 교만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신 21:17]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의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두 배를 상속받았습니다(신명기 21:17). 엘리사는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 여기고, 그의 영적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 게있음이나

b) 조건부 응답

- 엘리야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 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 하리라”(열왕기하 2:10).
- 엘리야는 갑절의 영을 주는 것이 자신의 권한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표적을 제시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들으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 이것은 영적 전이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영적 능력의 전달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의 영적 민감성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c) 실제로 받은 갑절의 영

-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엘리사는 실제로 엘리야보다 두 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14개 정도 기록되어 있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28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열왕기하 13:21). 이것은 엘리사가 받은 영적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하 13: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때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 전이의 상징적 행위

a) 겹옷의 의미

-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겹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겹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겹옷은 그의 직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 스가랴 13:4을 보면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각각 자기가 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짓말하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털옷'은

선지자의 표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4에서도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그가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 엘리야의 겹옷은 특별히 기적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13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2:8에서는 엘리야가 겹옷으로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b) 겹옷을 통한 능력의 전달

- 엘리사가 엘리야의 겹옷을 집어 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스승의 유품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속받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 엘리사는 그 겹옷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겹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나이까"(열왕기하 2:14).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이가 때로는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안수는 이러한 물리적 접촉을 통한 영적 전달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을 얹는 행위 자체에 마법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물리적 접촉을 통해 영적 능력을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c) 공동체의 확인

-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 돌아왔을 때,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열왕기하 2:15). 그들은 즉시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영적 전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서 엘리아와 같은 영적 권위를 느꼈고, 즉시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 이들의 인정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엘리사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능력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면 특별한 영적 권위와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3) 전이의 결과와 증거

a) 즉각적인 기적들

- 엘리사가 갑절의 영을 받은 직후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 성의 물을 고친 것입니다(열왕기하 2:19-22).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호소했을 때, 엘리사는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물은 즉시 고쳐졌고 오늘날까지도 좋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 두 번째 기적은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일어난 심판입니다(열왕기하 2:23-25). 비록 논란이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은 엘리사의 선지자적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b) 엘리야를 능가하는 사역

-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엘리

[왕하 2:19]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왕하 2:20]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왕하 2:21]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왕하 2:22]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왕하 2:23] 엘리사가 거기서 벤엘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왕하 2:24]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 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사십이 명을 찢었

야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과부의 기름을 늘린 기적(열왕기하 4:1-7),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열왕기하 4:18-37),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기적(열왕기하 5장), 쇠도끼를 물에 뜨게 한 기적(열왕기하 6:1-7) 등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 특히 주목할 것은 엘리사의 기적이 더 일상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주로 심판과 대결의 성격이 강했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치유와 회복, 공급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갑절의 영이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도 포함했음을 보여줍니다.

c)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 능력

- 가장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의 능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20-21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을 장사하던 중 모압 도적떼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살아나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 이것은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도 그의 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던 것

더라
[왕하 2:25]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왕하 13:20]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왕하 13: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이를 통해 받은 능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강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누가복음 9:1-2, 10:19)

1) 능력과 권위의 부여

a) 예수님의 의도적 전달

- 누가복음 9:1-2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한 학생으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자신과 같은 사역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려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어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 여기서 '주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디도미'는 선물로 주다, 수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니다.

b) 능력과 권위의 구별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능력'(δύναμις, 뉘나미스)과 '권위'(ἐξουσία, 엑수시아)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뉘나미스'는 실제적인 힘, 에너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여기서 파생시킨 것처럼, 이것은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으로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엑수시아'는 법적 권한, 정당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 힘 때문이 아니라 법적 권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귀신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럴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없는 능력은 불법적이고, 능력이 없는 권위는 무력합니다. 예수님이 이 둘을 모두 주셔서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c) 전달의 목적

-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때,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 그 말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 둘째 목적은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 전달의 범위와 내용

a) 포괄적인 권능

- 누가복음 10:19에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다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창세기 3장, 요한계시록 12:9), 전갈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은 악하고 해로운 것을 상징합니다(요한계시록 9:1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는 표현은 더욱 포괄적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속박할 수 있으며,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사탄의 모든 능력보다 우월합니다.

b) 절대적 보호의 약속

-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결코, 절대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보호도 포함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들은 많은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물리적 핍박, 영적 공격, 정신적 압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는 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안전합니다.
- 이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물 위를

걸을 때는 빠졌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걸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c) 제자들의 책임

-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에게는 책임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으로 돈을 벌거나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나누어야 했습니다.

3) 전이의 결과

a) 제자들의 놀라운 보고

-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흥분하여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누가복음 10:17).
- '항복하더이다'는 헬라어 '휘포타소'는 군사 용

어로 '복종하다', '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의 명령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내시는 것을 보기만 했지, 자신들이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즉시 복종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 제자들의 흥분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게 된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b) 예수님의 확인과 교정

-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누가 복음 10:18).
-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우주적 영적 전쟁의 일부임을 보여 줍니다. 제자들이 귀신 하나를 쫓아낼 때마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중요한 교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누가복음 10:20).
- 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에 도취되지 않고 본질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c) 지속적인 능력의 증거

- 제자들이 받은 능력과 권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도행전 3:6)고 선포하여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했습니다(사도행전 8장). 바울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사도행전 19:11-12).

[행 19: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행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 바울의 은사 전이 (로마서 1:11, 디모데후서 1:6)

1) 바울의 간절한 소망

a)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

-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로마서 1:11).
-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간절히 원하다'는 헬라어 '에피포테오'는 매우 강한 갈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깊은 열정과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프뉴마티콘'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프뉴마티콘'은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주고자 한 것은 인간적인 재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였습니다.

b) 나누어 줄 수 있다는 확신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딤후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 바울은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헬라어 '메타디도미'는 '나누다', '분배하다', '전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일까요?
-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충만을 받았으며, 안디옥 교회의 안수를 통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통해 성령께서 은사를 전달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4:15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그는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c) 견고케 하려는 목적

- 바울이 은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헬라어 '스테리조'는 '확고하게 세우다', '흔들리지 않

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견고해져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영적 은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딤후 1: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딤후 1: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행 16:1] 바울이 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행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행 16: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았더라

2) 디모데에게 전달된 은사

a) 영적 부자 관계

-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디모데전서 1:2)이라고 부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디모데후서 1:2)이라고 부릅니다.
- 이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유산과 축복의 전달을 의미했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유산을 전달했습니다.
-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고(사도행전 16:1-3),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으며, 여러 교회에 바울의 대리인으로 파송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사역을 배웠고, 바울의 영적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b) 안수를 통한 은사 전달

- 디모데후서 1:6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 여기서 바울은 ‘나의 안수함으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헬라어 ‘디아 테스 에피테세오스 톤 케이론 무’는 ‘나의 손을 얹음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바울의 안수를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 ‘네 속에 있는’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헬라어 ‘엔 소이’는 ‘네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전달된 은사는 받은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은 그 은사의 궁극적 출처가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안수했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통로였고, 하나님이 근원이었습니다.

c) 은사의 재점화 필요성

-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 '아나조튀레오'는 매우 생생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다', '숯불에 바람을 불어 다시 타오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 캠프파이어를 생각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장작이 다 타고, 바람이 없으면 불은 점점 꺼져 갑니다. 그러나 새 장작을 넣고, 바람을 불어 주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디모데는 아마도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 거짓 교사들의 도전, 자신의 젊음에 대한 무시 등으로 인해 그의 영적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받은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d) 지속적 영향력

-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은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고, 거짓 교사들과 싸웠으며,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 디모데후서 2:2에서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증

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이의 연쇄반응을 보여줍니다. 바울 → 디모데 → 충성된 사람들 →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은사와 진리의 전달입니다.

2. 전이되는 것들

가. 성령의 은사들

1) 예언, 방언, 통역 (고린도전서 12:8-10)

a) 예언의 은사 전이

-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된 사울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이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리라”(사무엘상 10:5-6)고 예고했습니다.
- 실제로 사울은 그전까지 예언한 적이 없었습

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평범한 청년으로,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름부음(일종의 안수)을 받은 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즉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사무엘상 10:11)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은사가 안수를 통해 즉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예언의 은사가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성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고 훈련하면서 점점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 메시지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 신약 시대에는 이 은사가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7-18에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

언의 은사는 특별한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b) 방언의 은사 전이

- 방언의 은사는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6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의 안수를 받자마자 즉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 방언의 은사가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2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사입니다.
-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충전되게 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고린도전서 14:4)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공적 메시지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통역과 함께 사용되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즉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음절로 시작하여 점차 발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워 집니다.

c) 통역의 은사 전이

-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4:13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통역의 은사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통역의 은사가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방언을 들으면서 그 의미가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문장의 방언이 긴 메시지로 통역되기도 하고, 긴 방언이 짧은 메시지로 통역되기도 합니다.
- 통역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27-28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

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리”고 말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안수를 통해 통역의 은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고, 다른 성도들의 확인을 받으면서 점차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통역한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참된 통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치유와 기적의 은사

a) 병 고치는 은사의 다양성

- 고린도전서 12:9에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 ‘카리스마타 이아마톤’은 다양한 종류의 치유 은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관절이나 뼈의 질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 오랄 로버츠(Oral Roberts) 목사는 자신의 오른손에 특별한 열기와 진동을 느끼면서 치유

의 은사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캐서린 쿨만(Kathryn Kuhlman)은 집회 중에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어떤 병을 고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 병 고치는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종종 손에 특별한 감각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열기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어떤 사람은 진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자를 향한 특별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마태복음 14:14)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치유의 은사는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병자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b) 능력 행함의 은사

- ‘능력 행함’(ἐνεργήματα δυνάμεων)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병 고침보다 더 광범위한 초자연적 능력을 포함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게 하며, 물 위를 걷고,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등의 기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들이 나았고(사도행전 5:15),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갑니다(사도행전 19:12). 이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능력 행함의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적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c) 믿음의 은사

- 고린도전서 12:9에 언급된 '믿음'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

[행 5: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바라고

[행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고전 12: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룹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확신을 갖는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고린도전서 13:2)이 바로 이것입니다.

- 조지 뮐러(George Mueller)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실은 마차가 도착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 믿음의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량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분별과 지혜의 영

a) 영들 분별의 은사

-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혼에서 나온 것인지

지, 아니면 악한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는 은사입니다.

- 사도행전 16:16-18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말 자체는 옳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악한 영에서 나온 것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 영 분별의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영적 민감성이 예민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즉시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평안함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며, 성령의 임재를 감지하거나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고,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동기를 파악하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며, 교회를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b) 지혜의 말씀 은사

- 지혜의 말씀은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

[행 16: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행 16: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행 16: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왕상 3:16] 그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와서 그 앞에서

[왕상 3:17]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왕상 3:18]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지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왕상 3:19]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

으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다툰 때 "살아 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한 것(열왕기상 3:16-28)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예수님은 이 은사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21)고 대답하신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 지혜의 말씀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상담자, 중재자,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c) 지식의 말씀 은사

- 지식의 말씀은 자연적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아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왕상 3:20]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왕상 3:21]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왕상 3:22]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상 3:23]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상 3:24]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상 3:25]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받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받은 저 여자에게 주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요한복음 1:48)고 말씀하신 것이 그 예입니다.

- 엘리사는 이 은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몰래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고(열왕기하 5:26), 아람 왕이 비밀리에 세운 작전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열왕기하 6:8-12).
- 지식의 말씀 은사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 과거의 사건, 숨겨진 죄,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 등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상담과 치유 사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왕상 3:26]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 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상 3:27]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왕상 3: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나. 영적 권위와 능력

1) 사역의 권위

a) 복음 전파의 권위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태복음 28:19)라고 명령하시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고, 동시에 그 명령을 수행할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 안수를 통해 복음 전파의 권위가 전달될 때, 받

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담대하게 설교하여 3천 명이 회개한 것처럼, 복음 전파의 권위를 받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 사도행전 13:2-3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바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안수를 통해 그들은 교회의 권위와 후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b) 가르침의 권위

-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이러라"(마태복음 7:29)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가르침이었습니다.
- 디모데는 바울과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 가르침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디모데전서 4:11),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

[행13:2]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행13:3]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상 힘쓰라”(디모데후서 4:2)고 권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안수를 통해 받은 가르침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 가르침의 권위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하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c) 치리의 권위

- 치리의 권위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징계하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8:1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고린도전서 5:4-5)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권위로 행한 영적 치리였습니다.
- 치리의 권위가 안수를 통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분별력과 공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죄를

적절히 다루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며,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2) 영적 전쟁의 능력

a) 귀신을 쫓는 능력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마가복음 6:7)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누가복음 10:17)라고 보고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 안수를 통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사도행전 8: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안수를 통해 받은 귀신을 쫓는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악한 영들과 대

면하고,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b) 보호와 방어의 능력

- 영적 전쟁에서는 공격뿐 아니라 방어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16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합니다. 안수를 통해 보호와 방어의 능력이 전달될 때, 받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편 91:11-12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보호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해를 받지 않은 것(사도행전 28:3-6)은 이런 보호의 능력이 작동한 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보호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 속박을 푸는 능력

-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누가복음 4:18) 라고 하셨습니다. 안수를 통해 이런 해방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양한 속박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 우울증의 속박, 저주의 속박 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앓은뱅이를 일으킨 것(사도행전 3장)은 육체적 속박을 푸는 능력의 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것(사도행전 16:16-18)은 영적 속박을 푸는 능력의 예입니다.

3. 능력 전이의 조건

가. 안수자의 영적 준비

1) 거룩한 삶

a) 개인적 성결

- 안수를 통해 능력을 전달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12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 거룩한 삶이란 죄에서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17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안수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전달하려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 레위기 21:6-8은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은 거룩함이니라." 구약의 제사장이 그러했다면,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안수 사역을 앞두고는 특별한 성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b) 관계적 성결

- 개인의 거룩함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23-24는 "그

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 누군가와 불화가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안수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쓴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안수를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15는 “너희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 특히 가정에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3:7은 남편들에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영적 권위가 약화됩니다.

c) 지속적 성결

- 거룩함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11:44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린도전서 15:31)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안수 사역

자는 특별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23-24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 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 성령 충만

a) 성령 충만의 필요성

- 안수를 통한 능력 전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3을 보면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 에베소서 5:18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 성령 충만 없이 안수하는 것은 빈 그릇으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b)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38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 둘째,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7:37-38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14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 넷째,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32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 성령 충만의 유지

-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

습니다(사도행전 2:4, 4:8, 4:31).

-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첫째, 말씀 충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16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도 충만합니다.
- 둘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유다서 20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합니다. 특히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셋째, 찬양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18-20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행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행 4:31]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 믿음과 권위

a)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확신

- 안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19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라고 약속합니다.
- 이 권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8-19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수할 때 주저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21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의심은 능력의 통로를 막습니다.

b) 믿음의 담대함

- 히브리서 11:6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안수할 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야고보서 1:6-7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 믿음의 담대함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일에도 전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을 통해 골리앗과 싸울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c) 권위의 올바른 사용

- 영적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25-28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 권위를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 권위를 잃게 됩니다. 삼손이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 권위도 남용하면 거두어집니다.
- 베드로전서 5:2-3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나. 받는 자의 자세

1) 갈망하는 마음

a) 영적 갈급함

- 안수를 통해 능력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1-2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3은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주린 자만이 채움을 받습니다.
- 고린도전서 14:1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모하다’는 헬라어 ‘젤로오’는 ‘열정적으로 추구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b) 순수한 동기

-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을 때 베드로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사도행전 8:20)라고 책망했습니다.
- 야고보서 4:3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 구하면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 하되"(고린도전서 14:1)라고 말합니다. 사랑 이 동기가 될 때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간절한 기도

- 안수받기 전에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태복음 7:7)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11:5-8의 비유는 간절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사람이 "간청함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청함'은 '끈질김',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사무엘상 1장), 간절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2) 믿음으로 받음

a) 받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

- 마가복음 11:24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안수받을 때 “반드시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히브리서 11:1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마태복음 8:8)라고 고백한 것처럼, 안수를 받을 때 “지금 능력이 전달된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b) 의심을 버리는 믿음

- 야고보서 1:6-7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의심은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의심하여 빠진 것처럼(마태복음 14:30-31), 의심하면 받은 것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 마가복음 9:23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한계가 능력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마 14: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 14: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c) 행동하는 믿음

- 야고보서 2:26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안수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를 즉시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아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갔을 때 나병이 나은 것처럼(열왕기하 5:14), 순종의 행동이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 사도행전 3:6-7에서 베드로가 앓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믿음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왕하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3) 순종과 헌신

a) 하나님의 뜻에 순종

- 안수를 통해 받은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22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지만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것처럼(사무엘상 15:23),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삼상 15: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라”(요한복음 4:34)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b) 온전한 헌신

- 로마서 12:1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안수받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라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 2:20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c) 지속적인 충성

- 디모데후서 2:2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충성해야 합니다.
- 마태복음 25:21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 요한계시록 2:10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4. 능력 전이의 실제

가. 성령의 나타남

1) 육체적 현상들

a) 열기와 전기 같은 느낌

-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현상을 경험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열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부위가 뜨거워지거나 온몸에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 예레미야 20:9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열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찌릿찌릿한 감각이나 진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46에서 예수님이 "내게

서 능력이 나간 줄 얹이라”고 하신 것처럼, 능력의 흐름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또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이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38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b) 몸의 떨림과 진동

-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큰 떨림이 내게 임하고”(다니엘 10:7)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몸이 떨릴 수 있습니다.
- 예레미야 23:9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잠긴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 사도행전 4:31은 “빌기를 다함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물리적 진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이런 진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c) 쓰러짐과 무력감

- 때로는 안수를 받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서 있을 수 없어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을 '성령 안에서 쓰러짐'(Slain in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 요한계시록 1:17에서 요한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져"(사도행전 9:4)라고 기록됩니다. 겔 1:28에서도 에스겔이 "내가 보고 곧 엎드려"라고 기록합니다.
- 그러나 쓰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필수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2) 감정적 현상들

a) 기쁨과 웃음

- 성령의 임재는 종종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52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과 기쁨은 함께 갑니다.
- 느헤미야 8:10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

은 억제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 시편 126:2는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b) 눈물과 통회

-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 요엘 2:12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 시편 126:5-6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c) 평안과 안식

- 어떤 사람들은 깊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7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 복음 11:28)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식이 임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듯한 평안을 느낍니다. 이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3) 영적 체험들

a) 환상과 꿈

- 안수를 받을 때 환상을 보거나 예언적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7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약속합니다.
-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사도행전 10:3),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사도행전 16:9)처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 다니엘 7:1은 "다니엘이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라고 기록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미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천사의 방문

- 때로는 천사를 보거나 천사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4는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누가복음 1:11),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누가복음 1:26)처럼, 특별한 때에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시편 91:11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c) 하나님의 음성

- 가장 귀한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0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고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사야 30:21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약속합니다.
- 요한복음 10:27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목자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즉각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

1) 즉각적 변화

a) 즉시 나타나는 은사

- 어떤 은사는 안수받는 즉시 나타납니다. 사도 행전 19:6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은 후 즉시 예언한 것(사무엘상 10:10)처럼, 어떤 은사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사도행전 10:46)고 기록합니다. 준비된 마음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상 10: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b) 즉각적 치유

- 병 고침도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2는 "즉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고 기록합니다.
- 사도행전 3:7은 "곧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라고 기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즉시 일어나 걷은 것(요한복음 5:8-9)처럼, 하나님의 능

력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c) 즉각적 변화의 표시

- 즉각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느끼고,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영적 감각이 열립니다.
-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사도행전 9:18) 보게 된 것처럼, 영적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점진적 변화

a) 서서히 나타나는 은사

- 모든 은사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28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 디모데가 받은 은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디모데후서 1:6)고 권면한 것입니다.
-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듯이, 안수를 통해 받은 은사의 씨앗이 시간을 두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니다.

b) 단계적 성장

- 영적 성장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베드로 후서 1:5-7은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진적 성장이 정상적입니다.
- 에베소서 4:15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안수받은 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c) 인내의 필요성

- 점진적 변화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36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 하박국 2:3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 6:9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

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3) 변화의 확인

a) 내적 확신

-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확신입니다. 로마서 8:16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 요한일서 3:24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1:21-22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b) 외적 증거

- 내적 확신과 함께 외적 증거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16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 갈라디아서 5:22-23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이 나타나며, 사

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인정하고, 은사를 확인해 주며, 사역의 기회가 열립니다.

c) 지속적 점검

- 받은 은사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5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 디모데전서 4:14-15는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받은 은사를 개발하며, 더 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다. 열매로 분별하기

1) 성령의 열매

a) 사랑의 열매

- 갈라디아서 5:22-23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진정한 능력 전이가 일어났다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합니다.

- 고린도전서 13:1-3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입니다.
- 요한일서 4:7-8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합니다.

b) 성품의 변화

-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 베드로가 성령 충만 후 담대해진 것처럼(사도행전 4:13),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 고린도후서 3:18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합니다.

c) 삶의 변화

- 진정한 능력 전이는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9:20-22를 보면 사울이 회심 후 즉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행 4: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행 9: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행 9: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

-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누가복음 19:8) 라고 고백한 것처럼, 가치관이 바뀝니다.
- 고린도후서 5:17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어 가고자 함이 아니나 하더라
[행 9:22]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하니라

2) 사역의 열매

a) 영혼 구원의 열매

- 진정한 능력을 받았다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41은 베드로의 설교로 "삼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합니다.
-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큰 기쁨이 있더라"(사도행전 8:8)고 기록합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 요한복음 15:16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b) 치유와 회복의 열매

-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 사도행전 5:16은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

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기록합니다.

- 야고보서 5:16은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이에 낫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c) 교회 성장의 열매

- 진정한 능력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킵니다. 사도행전 9:31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라고 기록합니다.
- 에베소서 4:11-12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 고린도전서 14:26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3) 장기적 열매

a) 지속성

- 진정한 열매는 지속적입니다. 마태복음 13:23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고 말합니다.

-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매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9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 요한복음 15:16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인 열매가 진정한 열매입니다.

b) 재생산

- 진정한 열매는 재생산됩니다.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제자를 만들며,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 디모데후서 2:2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4대에 걸친 전수가 일어납니다.
- 마태복음 28:19-20의 대위임령은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영원한 열매

- 궁극적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12-14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라고 말

합니다.

- 요한계시록 14:13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 마태복음 6:20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 장

/

축복 안수

제 3 장 축복안수

훈련 목적

- * 축복 안수의 구체적 방법과 실천 지침을 완전히 습득한다
- * 다양한 상황별 축복 안수기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안수를 통한 축복과 임직의 영적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민수기 6:27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
라엘 자손에게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라"

보조 구절: 디모데전서 5: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
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1. 축복 안수의 실제

가. 축복 안수의 준비

1) 안수자의 영적 준비

a) 축복의 그릇 되기

- 축복의 안수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2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것처럼, 축복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축복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한 실제적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축복하는 마음가짐이 형성됩니다.
- 둘째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보더라도 그것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너는 안 돼"라는 말 대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입니다.
- 셋째로, 매일 최소한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축

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가족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라고 말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당신의 수고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면 공식적인 안수 축복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b) 축복의 권세 확인

- 축복 안수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 첫째, 창조 질서의 권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담대하게 자녀를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매일 저녁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안수 축복입니다.
- 둘째, 직분의 권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따른 축복의 권세를 가집니다. 특히 목사는 설교 후 축도를 통해 회중을 축복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민수기 6:27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

라엘 자손에게 두리니”라는 말씀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에게 두는 거룩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 셋째, 믿음의 권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베드로전서 2:9) 축복할 권세를 가집니다. 신앙의 선배가 후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권세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c) 축복의 내용 준비

- 축복 안수를 하기 전에 무엇을 축복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 먼저 축복받을 사람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는 지혜와 평안의 축복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형통과 정직의 축복을,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사랑과 하나됨의 축복을 준비합니다.
- 다음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축복 내용을 준비합니다. 시편 1:3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축복, 에베소서

1:3의 신령한 복 등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내용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주신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성경 인물과 약속을 연결시킵니다.

- 마지막으로 예언적 축복을 준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합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처럼(창세기 49장) 각 사람의 특성과 부르심에 맞는 예언적 축복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도로 준비할 때 더욱 정확하고 능력 있는 축복이 됩니다.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
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 축복받을 사람의 준비

a) 마음 자세

-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 축복받을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마

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축복받을 자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축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렇게 사전 설명을 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의 상처나 쓴 뿌리가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려야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축복 안수를 진행합니다.

b) 신체적 자세

- 축복받는 사람의 신체적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세는 의자에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 의자에 앉는 경우, 편안하게 앉되 허리를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뜨고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편안

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 무릎을 꿇는 경우는 더욱 경건한 자세입니다. 특별한 임직이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축복받을 때 적합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거나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완전한 순복과 겸손을 나타내므로 더 깊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 있는 자세로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축복하거나 예배 중 축복할 때는 서 있는 자세가 적합합니다. 이때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거나 하늘을 향해 들어 받는 자세를 취합니다.

c) 영적 준비 체크리스트

- 축복받기 전 확인해야 할 영적 준비 사항들입니다:
- 먼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한 후 축복합니다.
- 다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확인합니다. “누구와든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의 막힘은 축복의 통로를 막으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믿음과 기대를 확인합니다. “하나

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경 준비

a) 장소 선택

- 축복 안수를 위한 장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의 예배당이나 기도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축복할 때는 거실이나 안방 등 조용하고 정돈된 곳을 선택합니다. 텔레비전은 끄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나 성경을 보이는 곳에 두어 경건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자녀를 축복할 때는 자녀의 방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축복받은 공간이 됩니다.
- 야외에서도 축복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축복받은 것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축복하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산이나 바닷가, 공원 등에서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결시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할 수 있

습니다.

b) 시간 선택

- 축복 안수의 시간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축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새벽이나 저녁도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함으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축복할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잠들면 평안한 잠을 자고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 특별한 날을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 입학, 졸업, 결혼, 이사, 개업 등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축복 안수를 하면 그 의미가 배가됩니다. 새해 첫날이나 자녀의 생일에 축복하는 것을 가족 전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c) 분위기 조성

- 축복 안수를 위한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은 경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초

청합니다. 찬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찬양을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 조명도 적절히 조절합니다. 너무 밝으면 산만
하고 너무 어두우면 졸립니다. 은은한 조명
이 집중하기에 좋습니다. 향초를 켜거나 꽃을
놓아 시각적, 후각적으로도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성경을 펴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의 축복 구절이나 신명기 28장의
축복 장을 펴놓으면 말씀에 근거한 축복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향유를 섞어
준비하면 구약의 거룩한 관유처럼 특별한 의
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축복 안수의 방법

나. 구체적인 축복안수의 방법

1) 손 얹는 방법

a) 기본 자세

- 축복 안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머리에 손
을 얹는 것입니다.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 한 손으로 안수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처럼, 오른손은 더 큰 축복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을 머리 정수리에 가볍게 얹되, 너무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머리에 닿도록 하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퍼거나 살짝 구부립니다.
- 양손으로 안수할 때는 더욱 포괄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양손을 머리 양옆에 얹거나, 한 손은 머리에 다른 손은 어깨에 얹을 수 있습니다. 양손을 모아 머리 위에 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양손이 만나는 지점이 정수리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레위기 16:21에서 아론이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한 것처럼, 양손 안수는 완전한 전달을 의미합니다.
- 손을 얹을 때의 압력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볍게 얹으면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세게 누르면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한 압력은 손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정도입니다. 히브리어 '사마크'가 '기대다'는 의미인 것처럼, 살짝 기대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얹습니다.

b) 다양한 안수 방법

- 머리 안수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안수 방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깨 안수는 격려와 위로의 의미가 강합니다. 양손을 양 어깨에 얹고 축복하면 든든한 지지와 격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오른팔이 되시리라"는 축복과 함께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 이마 안수는 지혜와 분별력을 위한 축복에 적합합니다. 엄지와 중지로 이마를 살짝 감싸듯이 잡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손을 잡고 하는 안수도 있습니다. 두 손으로 상대방의 두 손을 감싸 쥐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친밀감과 동행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특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라는 축복과 함께 손을 꼭 잡아줍니다.

c) 집단 안수

- 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위해 안수하는 집단 안수도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6:6에서 사도들이 일곱 집사에게 안수한 것처럼, 집단 안수는 공동체의 축복과 확인을 의미합니다.
- 집단 안수를 할 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한 명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머지 사람들

[행 6:6] 사도들 앞에 세
우니 사도들이 기도하
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라

은 어깨나 등에 손을 얹습니다. 또는 원을 만들어 둘러서서 모두 손을 뻗어 안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자 작은 소리로 기도하되, 대표자의 기도가 끝난 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 연쇄 안수 방법도 있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에게 한 명이 안수하고, 그 사람의 어깨에 다음 사람이 손을 얹고, 계속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공동체를 통해 흘러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축복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수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축복 기도문 구성

a) 도입부 - 하나님 인정

- 축복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등으로 시작합니다.
- 구체적인 예: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중 (이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이유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b) 본론 - 구체적 축복

-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축복 내용을 선포합니다.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축복을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당신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경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학생에게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당신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학업에 집중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배운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인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c) 결론 - 인증과 선포

- 축복의 마지막은 강력한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으로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 완전한 예: "이제 이 모든 축복이 (이름)에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부어지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축복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축복 안수의 실행

a) 시작 - 분위기 전환

- 축복 안수를 시작할 때는 일상적 분위기에서 거룩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짧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복 주시옵소서.”

b) 진행 - 안수와 축복

- 실제 안수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축복받을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이때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얹습니다.
 - 잠시 침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3-5초).
 - 준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분명한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 중간중간 개인적인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구체적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 마지막에 확증의 선포를 합니다: “이 축복이 당신의 삶에 실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c) 마무리 - 격려와 확인

- 축복 기도가 끝난 후에는 따뜻한 격려와 확인

의 시간을 갖습니다.

- “(이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선포된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포옹이나 악수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이때 추가적인 개인적 권면이나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 필요하다면 축복의 내용을 적어서 전달합니다. 특히 예언적 축복이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기록으로 남겨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상황별 축복 안수

1) 가정에서의 축복 안수

a) 자녀 축복

- 매일 저녁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유대인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 딸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 현대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름), 아빠/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자는 동안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평안히 쉬기를 축복한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께 사랑받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b) 배우자 축복

-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서로를 위해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요셉처럼 인정받고 형통하기를,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정직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
기를 축복합니다.”

-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평생의 동반자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롭고 부지
런하기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마르다처럼 섬기
기를,

당신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c) 가족 축복 예식

- 특별한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축복 예식을 가
질 수 있습니다. 새해, 생일, 졸업, 입학 등의
때에 가족 축복 예식을 합니다.

- 순서:

- 찬양으로 시작 (온 가족이 함께)
- 성경 봉독 (민수기 6:24-27 또는 신명기
28:1-14)

- 가장이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
 - 개별 축복 (한 명씩 나와서 모든 가족에게 축복받음)
 - 서로 축복하기 (돌아가며 옆 사람 축복)
 -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 이런 가족 축복 예식을 정기적으로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영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2) 교회에서의 축복 안수

a) 예배 중 축복

- 예배 중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 후 또는 성찬식 후에 축복 안수 시간을 갖습니다.
- 어린이 축복 주일: 5월 어린이 주일에 모든 어린이를 강단으로 초청하여 축복합니다. 목사 와 교사들이 함께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 청소년 축복: 수능 전, 개학 전 등에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다윗의 용기를, 요셉의 꿈을" 주제로 축복합니다.
- 축복 기도회: 월 1회 특별 축복 기도회를 열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목회자와 중보기도팀이 함께 섬깁니다.

b) 소그룹 축복

-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에서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생일 축복: 그 달 생일자를 위해 모두가 둘러서서 축복합니다. 각자 한 가지씩 축복의 말을 하고 다함께 안수 기도합니다.
- 돌아가며 축복: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집중 축복을 받습니다. 15분 정도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필요를 나눈 후, 모두가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 파송 축복: 선교나 이사, 유학 등으로 떠나는 지체를 축복합니다. 각자 성경 구절 하나씩을 준비하여 축복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c) 특별 축복 예식

- 교회에서는 다양한 특별 축복 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신년 축복 예배: 새해 첫 주일에 온 성도가 앞으로 나와 목회자에게 안수 축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 직업별 축복: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들을, 스승의 날에는 교사들을, 근로자 주일에는 직장인들을 축복합니다. 직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축복을 합니다.

- 치유 축복 예배: 분기별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병든 자, 상한 자, 낙심한 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3) 개인 사역에서의 축복

a) 심방 중 축복

- 가정 심방이나 병원 심방 시 축복 안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 가정 심방 시:
 - 먼저 가정의 상황을 충분히 듣습니다
 -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마지막에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 집 자체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합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고..."
- 병원 심방 시:
 - 환자의 손을 잡고 위로합니다
 - 치유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 이마나 손에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b) 상담 후 축복

- 상담을 마칠 때 축복으로 마무리하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린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앞으로의 길에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c) 전도 후 축복

-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 축복 안수를 합니다.

“(이름),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장

/

치유와 회복의 안수

제 4 장 치유와 회복의 안수

훈련 목적

- * 치유 안수의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 방법을 완전히 습득한다
- * 다양한 질병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안수 치유 방법을 체득한다
- * 안수를 통한 내적 치유와 영적 회복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 * 치유 안수 사역의 균형잡힌 관점과 의료적 협력 방안을 확립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마가복음 16:18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조 구절: 야고보서 5:14-15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 치유 안수의 성경적 기초

가. 구약에 나타난 치유 안수

1) 치유하시는 하나님

- a) 여호와 라파 - 치료하시는 하나님
 - 출애굽기 15:26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יְהוָה רֹפֵא) 즉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이것은 치유가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 치유 안수를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수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치료자임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103:3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죄 사함과 병 고침이 함께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b) 구약의 치유 사례들

- 구약에는 직접적인 안수 치유 기록은 많지 않

지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 예들이 있습니다.

-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 치유에서, 엘리사는 직접 안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4:34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라고 기록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치유를 보여줍니다.
-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수할 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 열왕기하 20:7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치료할 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여 종기에 붙이게 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영적 치유와 함께 자연적 치료법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안수 기도와 함께 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c) 치유의 언약적 근거

- 신명기 7:15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이 언약적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히 치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출애굽기 23:25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기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치유 안수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회개와 헌신을 권면해야 합니다.
- 실제로 안수할 때 이런 언약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질병을 당신에게서 제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2) 예언자들의 치유 사역

a) 엘리야의 치유 안수

- 열왕기상 17:17-24에 기록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안수 치유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 엘리야는 먼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위해 특별한 장소와 환경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치유 안수를 할 때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얹드리고"(21절) - 여기서 '세 번'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끈질긴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 번의 안수로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 엘리야의 기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21절). 이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막연히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폐암 세포가 사라지게 하소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b) 엘리사의 치유 방법

-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 열왕기하 4:32-35에서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 먼저 기도했습니다 (33절)
 - 아이 위에 올라 얹드렸습니다 (34절)
 -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댔습니다
 - 아이의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 이것은 안수 치유의 실제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

- 기도로 시작 (하나님께 의탁)
 - 직접적 신체 접촉 (안수)
 - 시간을 두고 인내 (즉시 포기하지 않음)
 - 변화를 관찰 (치유의 징후 확인)
- 오늘날 우리가 안수할 때도 이 과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c) 치유와 믿음의 관계

- 구약의 치유 사례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1:8-9의 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행동이 치유와 연결됩니다.
- 나아만 장군의 경우 처음에는 엘리사의 지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를 거부했지만, 종들의 권유로 순종했을 때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은 치유받으려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안수할 때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 예수님의 치유 안수

1) 안수를 통한 직접 치유

a) 다양한 안수 방법

-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수하여 치유하셨습니다. 각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마가복음 8:23-25의 벳새다 맹인 치유:
 -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 먼저 친밀한 접촉을 하셨습니다
 - "침을 뱉으시며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 침은 당시 치유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니" - 단계적 치유를 하셨습니다
-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 개인적 관심과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 때로는 단계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 포기하지 말고 완전한 치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안수할 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완전한 치유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b) 병자를 향한 금혼

- 마태복음 14:14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 아파하다'는 의미입니다.
- 치유 안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방법:
 - 안수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줍니다
 -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읍니다
 - "예수님의 긍휼이 당신을 만지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 치유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돌봅니다

c) 권위 있는 치유

- 마가복음 1:41-42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 예수님의 치유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권위 있는 안수 방법:
 -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 확신 있는 선포: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
 - 질병을 직접 명령: "암세포여 죽을지어다" "통증이며 떠나갈지어다"
 - 의심하지 않는 태도: 확신에 찬 목소리와 자세

2) 안수의 영적 의미

a) 능력의 전달

- 누가복음 6: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 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뒤나미스)이 나갔다는 것은 치유가 실제적인 능력의 전달임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영적 에너지의 전이입니다.
- 안수할 때 일어나는 일:
 - 성령의 능력이 안수자를 통해 흐릅니다
 - 병든 사람에게 생명력이 전달됩니다
 - 질병의 영적 뿌리가 제거됩니다
 -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립니다

다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을 때 열기, 전기가 흐르는 느낌, 따뜻함 등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적 능력이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b) 사랑의 접촉

- 마가복음 1:41에서 나병환자를 만지신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만지셨습니다.
- 안수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 소외된 자를 받아들이는 것
 - 더러운 자를 정결케 하는 것
 - 거부당한 자를 포용하는 것
 -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
- 실제 적용:
 - 에이즈 환자, 한센병 환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수합니다
 - 정신질환자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안수합니다
 - 전염병 환자도 지혜롭게 보호하면서 안수합니다

c) 믿음의 확증

- 마태복음 9: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
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 믿음을 확증시키셨습니
다. 손을 얹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
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 믿음을 강화하는 안수:
 - 안수 전 믿음 확인: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
을 믿습니까?"
 - 안수하며 믿음 선포: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 안수 후 믿음 격려: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
습니다. 믿고 감사하십시오"

3)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

a) 12제자 파송

- 마태복음 1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
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셨습니
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
진 권세입니다.
- 제자들에게 주신 것:
 - 권능(뒤나미스) - 실제적 능력
 - 권세(엑수시아) - 사용할 권한

- 사명 - 가서 고치라는 명령
-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b) 70인 파송

- 누가복음 10: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 70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이 특별한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70인 파송의 의미:
 - 12사도만이 아닌 모든 제자의 사역
 - 치유와 하나님 나라 선포의 연결
 - 평범한 제자도 할 수 있음
- 누가복음 10: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c) 대위임령과 치유

- 마가복음 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 믿는 자들'은 특별한 은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 실천 방법:
 -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 "나도 할 수 있다"
 -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두통, 감기부터
 - 경험을 쌓으십시오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계속 성장하십시오 - 더 큰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다. 사도들의 치유 안수

1) 오순절 이후의 치유

a) 베드로의 치유 사역

- 사도행전 3:6-7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는 직접적인 접촉을 나타냅니다.
- 베드로 치유의 특징:

- 예수님의 이름 사용
 - 직접적 신체 접촉
 - 믿음의 선포
 - 즉각적 행동 (일으키니)
- 사도행전 5: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
 - 베드로의 그림자도 치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임재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b) 바울의 치유 사역

- 사도행전 28:8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 바울의 치유 과정:
 - "들어가서" - 환자를 방문
 - "기도하고" - 먼저 하나님께 기도
 - "안수하여" - 직접적 접촉
 - "낫게 하매" - 완전한 치유
- 사도행전 19:11-12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 이것은 기름부음이 물건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기도한 손수건, 기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은사로서의 치유

- 고린도전서 12:9 "다른 사람에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어도 믿음으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 은사와 일반 안수의 차이:
 - 은사: 특별히 강한 치유 능력, 높은 성공률
 - 일반 안수: 모든 신자가 할 수 있음, 믿음이 중요
-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은사가 없다고 안수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2) 초대교회의 치유 문화

a) 일상적 치유 사역

- 야고보서 5:14-15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

리니”

- 초대교회에서 치유는 일상적이었습니다.
 - 병들면 장로를 부름
 - 기름 바르고 안수
 - 믿음의 기도
 - 치유와 회복
-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날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b) 공동체적 치유

- 초대교회의 치유는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적이었습니다.
- 공동체 치유의 특징:
 - 함께 기도함
 - 서로 안수함
 - 치유를 함께 기뻐함
 - 간증을 나눔
- 사도행전 4: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 교회 전체가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 치유와 전도

- 치유는 전도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 사도행전 9:34-35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
오니라”

- 한 사람의 치유가 전 지역 복음화로 이어졌습니다.
- 치유를 통한 전도 방법:
 - 아픈 사람을 찾아 안수 기도
 - 치유 후 예수님을 증거
 -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 교회로 인도

2. 치유 안수의 실제

가. 치유 안수 전 준비

1) 안수자의 영적 준비

a) 개인적 성결

- 치유 안수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안수자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레위기 11:4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성결 준비:
 - 죄의 고백과 정결

- 매일 아침 시편 139:23-24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
 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특히 다음 영역
 을 점검합니다
 - 교만 "내가 치유한다"는 생각
 -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 음란과 정욕
 - 거짓과 속임
 - 탐욕과 이기심
- 금식과 기도
 - 마태복음 17:21 "이런 종류가 나가게 하려
 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안 되느니라"
 - 정기적인 금식 (24시간)
 - 중요한 치유 사역 전 3일 금식
 - 특별한 경우 7일 이상 금식

2) 환자 상담과 준비

a) 병력 청취

- 치유 안수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야 합니다.
- 의학적 정보 수집
 - 진단명: "정확한 병명이 무엇입니까?"

- 증상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 기간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 치료 경과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영적 정보 파악
 - 구원 확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 신앙 상태: "교회는 다니십니까?"
 - 죄의 문제: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 용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 정서적 상태 확인
 - 두려움: "이 병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까?"
 - 분노: "하나님께 원망이 있습니까?"
 - 절망: "치유될 것을 믿습니까?"

b) 믿음 세우기

- 환자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유 약속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 유사한 질병이 치유된 간증을 들려줍니다: "작년에 같은 암으로 고생하던 분이 안수기도로 완치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c) 방해 요소 제거

-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 야고보서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 "혹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죄가 치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 낙태, 간음 등 큰 죄
 - 우상숭배, 무속행위
 - 저주, 맹세
 - 중독, 나쁜 습관
- 용서와 화해
 - 마태복음 6:14-15의 원리를 설명하고 용서하도록 돕습니다.
 -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 함께 용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름)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미움과

[마 6: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 두려움 제거: 디모데후서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나. 치유 안수의 과정

1) 시작 단계

a) 인사와 환영

-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환영으로 시작합니다.
“○○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 따뜻한 미소
 - 부드러운 목소리
 - 급하지 않은 태도
 - 진정한 관심 표현

b) 개회 기도

-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

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 찬양과 경배

- 짧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을 높입니다.
- 추천 찬양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 "나는 믿네"
 -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 환자도 함께 부르도록 격려합니다.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어 찬양하면 더욱 좋습니다.

2) 본 안수 과정

a) 기름 바르기

- 야고보서 5:14의 말씀대로 기름을 바릅니다.
- 기름 바르는 방법
 - 기름을 손에 붓습니다
 - 기도로 성별합니다: "주님, 이 기름을 성별하여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약 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 환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바릅니다
- 필요시 아픈 부위에도 바릅니다
- 기름 바르며 하는 선언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 이 기름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며,
 -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온 몸에 퍼지게 하소서."

b) 손 얹기

- 이제 실제로 손을 얹습니다.
- 손 얹는 위치
 - 기본: 머리(정수리 또는 이마)
 - 추가: 아픈 부위
 - 주의: 민감한 부위는 피하거나 동성이 안 수
- 손 얹는 방법
 - 가볍게 얹되 확실하게 접촉
 -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도록
 - 떨거나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 필요시 양손 사용
- 손 얹으며 하는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흘러가게 하소서."

c) 권위 있는 명령

-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질병에 명령합니다.

- 질병에 대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세포야, 죽을지어다!

종양야,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가라앉고 정상세포가 재생될지어다!”

- 악한 영에 대한 명령: 때로는 질병 뒤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가라!

죽음의 영아, 이 사람을 놓아줄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 생명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모든 세포에 충만하라!

죽어가는 세포는 살아나고,

병든 기관은 회복되며,

온 몸이 새롭게 될지어다!”

3) 기도의 진행

a) 지속적 기도

-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 반복 기도: 동일한 내용을 믿음으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 환자에게도 설명합니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 찬양과 함께: 중간에 짧은 찬양을 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b) 성령의 인도 따르기

- 기도 중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 내적 음성 듣기
 - 특정 부위를 안수하라는 감동
 - 특정 죄를 회개하라는 지시
 - 특정 말씀을 선포하라는 인도
- 지식의 말씀: 때로 성령께서 병의 원인이나 치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병은 10년

전 받은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용서해야 합니다.”

- 예언적 선포: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일 내에 큰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한 달 후 병원 검사에서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c) 환자의 반응 관찰

- 기도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신체적 반응
 - 열감: “뜨거운 것을 느끼십니까?”
 - 떨림: “몸이 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 평안: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 통증 변화: “통증이 줄어들었습니까?”
- 영적 반응
 - 눈물: 회개나 치유의 눈물
 - 웃음: 기쁨과 해방
 - 방언: 성령의 은사
 - 환상: 특별한 계시
- 즉각적 개선
 -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 “팔을 움직여 보세요”

-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다. 치유 안수 후 관리

1) 즉시 확인

a) 상태 점검

- 기도 직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질문하기
 - "어떠십니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 "통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 "몸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테스트하기: 가능한 범위에서 테스트합니다
 - 관절염: 구부려보기, 걸어보기
 - 시력: 글자 읽어보기
 - 청력: 작은 소리 들어보기
- 통증: 눌러보기, 움직여보기
- 기록하기: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날짜와 시간
 - 증상의 변화
 - 환자의 느낌
 - 특별한 현상

b) 믿음 격려

- 완전한 치유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 점진적 치유 설명
"때로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맹인을 두 번 안수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세요."
- 믿음의 고백 지도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몸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
- 감사 강조
"벌써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감사하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c) 주의사항 안내

- 치유 후 주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 영적 주의사항
 -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의심이 들어와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세요.”
- 의학적 조화
 - “약을 즉시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 정기 검진을 받아 치유를 확인하세요.
 - 하나님이 의사와 약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 요한복음 5:14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 “치유를 유지하려면:
 - 감사하는 삶
 - 말씀 순종
 - 정기적 예배
 - 간증과 나눔”

2) 후속 관리

- a) 정기 연락
 - 치유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락합니다.
 - 연락 일정
 - 다음날: 전화나 문자로 안부
 - 3일 후: 상태 확인

- 1주 후: 만나서 상담
- 1개월 후: 경과 확인
- 3개월 후: 간증 요청
- 연락 내용
 "○○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도 후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더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3. 질병별 안수 방법

가. 신체 질병

1) 암과 종양

- a) 암 환자 안수 준비
 - 암 환자를 위한 안수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환자 심리 이해
 - 암 환자들이 겪는 일반적 감정:
 - 죽음에 대한 두려움
 - 가족에 대한 걱정
 - 치료 과정의 고통
 - 경제적 부담
 - 영적 혼란
 -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접근합니다.

“○○님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기도로 치유받았습니다.”

- 영적 원인 탐색: 때로 암은 영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
 - 가계의 저주
 - 과거의 죄
- “혹시 오랫동안 품고 있는 미움이나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b) 암 세포에 대한 명령

- 암세포를 직접 명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구체적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세포는 죽을지어다!
비정상 세포는 정상세포로 변할지어다!
종양은 줄어들고 사라질지어다!
전이는 중단되고 역전될지어다!”
- 부위별 안수: 종양 부위에 직접 손을 얹습니다 (가능한 경우)
 - 유방암: 여성 사역자가 안수
 - 전립선암: 하복부에 안수
 - 폐암: 가슴에 안수

- 뇌종양: 머리에 집중 안수
- 생명 선포
 "하나님의 생명이 ○○님의 온 몸에 충만합니다.
 건강한 새 세포가 계속 생성됩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암세포를 물리칩니다.
 온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집니다."

c) 항암 치료와 병행

-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항암제 축복
 "주님, 이 항암제를 축복하여 주소서.
 암세포만 정확히 공격하게 하시고,
 정상 세포는 보호하여 주소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소서."
- 부작용 감소 기도
 "구토와 메스꺼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탈모가 최소화되게 하소서.
 체력이 유지되게 하소서.
 정상 세포가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2) 심장 질환

a) 심장병 안수 방법

- 심장 질환자를 위한 안수는 신중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 안수 위치

- 가슴 중앙 (직접 또는 손을 띄워서)
- 등 (심장 뒤쪽)
- 머리와 가슴 동시

- 심장 치유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막힌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심장 박동이 정상화될지어다!

심장 근육이 강화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 새 심장 선포

에스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님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새 심장을 받으십시오.

젊은이처럼 강한 심장이 될 것입니다."

b) 고혈압과 혈관 질환

- 혈압 정상화 기도

"혈압을 조절하시는 하나님,

○○님의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하소서.

수축기 120, 이완기 80의 정상 혈압을 선포합니다.”

- 손을 머리와 가슴에 얹고:
"혈관이 넓어지고 탄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원활하게 하소서."

c) 심장 수술 전후

- 수술 전 기도
"주님, 내일 있을 수술을 주관하여 주소서.
의사의 손을 인도하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합병증 없이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소서."
- 수술 후 회복
"빠른 회복을 선포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고,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며,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소서."

3) 관절과 뼈 질환

a) 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 안수 방법)

- 아픈 관절에 직접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지어다!"

관절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연골이 재생되고 회복될지어다!”

- 즉시 확인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팔을 움직여 보세요.”

“구부려 보세요.”

- 작은 변화도 격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완전한 치유가 진행 중입니다.”

b) 척추 질환(척추 정렬 기도)

- 환자를 세우거나 엎드리게 하고 척추를 따라 손을 얹습니다:

“뺨뚫어진 척추가 바르게 정렬될지어다!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아갈지어다!

눌린 신경이 풀어질지어다!

척추 사이 공간이 정상화될지어다!”

- 양손으로 척추를 쓸어내리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모든 척추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c) 골절과 골다공증(골절 치유)

- 부러진 뼈 부위에 손을 얹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이 뼈가 빠르게 붙고 재생되게 하소서.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게 하소서.”

- 골다공증 치유

“뼈 밀도가 증가하게 하소서.
칼슘이 잘 흡수되게 하시고,
뼈가 젊은이처럼 튼튼해지게 하소서.”

나. 정신 질환

1) 우울증과 불안

a) 우울증 치유 안수(우울증은 영적, 정신적, 육체
적 요인이 복합된 질병입니다)

- 정서적 치유(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예수님의 평안이 ○○님의 마음에 임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춥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 뇌 화학물질 정상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정상 수준으로 분비되게 하소서.
뇌의 화학적 균형이 회복되게 하소서.”

- 영적 회복

“생각을 사로잡던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우울의 영, 절망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지어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b) 공황장애와 불안증

- 즉각적 평안 선포(공황 발작 중이면):

“지금 즉시 평안을 명령합니다.

숨이 편안해집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 손을 가슴과 등에 동시에 얹고:

“예수님의 평강이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 근본 치유

“두려움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치유됩니다.

뇌의 편도체가 정상화됩니다.

완전한 평안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c) 트라우마 치유

- 기억 치유

“주님, 아픈 기억을 만져주소서.

과거의 상처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게 하소서.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소서.”

- 환자와 함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2) 중독증

a) 알코올 중독

- 중독의 영 대적

“알코올 중독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니 떠나가라!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지어다!
뇌의 중독 회로가 끊어질지어다!”

- 새로운 갈망 부여

“이제부터 술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술로 채우려던 공허함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지게 하소서.”

b) 약물 중독

- 해독 기도

“몸속의 모든 약물 독소가 제거되게 하소서.
금단 증상을 최소화하여 주소서.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 의지력 강화

“유혹을 이길 힘을 주소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소서.”

c) 도박 중독

- 탐욕의 영 제거

"탐욕의 영, 도박의 영은 떠나가라!
일확천금의 환상이 깨어지게 하소서.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 재정 회복 선포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빛이 청산되고 재정이 안정되게 하소서.
십일조와 헌금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3) 정신병

a) 조현병 (정신분열증)

- 영적 권위로 명령

"혼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환청과 환각은 사라질지어대!
생각이 명료해지고 정리될지어대!"

- 뇌 기능 회복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화되게 하소서.
뇌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하게 하소서.
망상과 환상이 사라지게 하소서."

- 인격 통합

"분열된 인격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찾게 하소서."

b) 조울증 (양극성 장애)

- 감정 안정화

"들뜨고 가라앉는 감정이 안정되게 하소서.

조증도 울증도 아닌 정상 감정을 유지하게 하소서.

뇌의 기분 조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게 하소서."

- 주기 차단

"조울의 주기가 끊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극단적 감정 변화가 없게 하소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소서."

다. 영적 문제

1) 귀신들림

a) 분별과 진단(귀신들림과 정신병을 구별해야 합니다)

- 귀신들림의 징후

- 초자연적 힘이나 지식
- 예수 이름에 극도로 반응
- 여러 인격이 나타남
- 성경이나 기도를 극도로 싫어함
- 이상한 언어를 구사

- 테스트 방법
 -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합니까?"
 -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게 함
 - 성경을 읽어보고 반응 관찰

b) 축사 안수

- 준비 사항
 -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 충분한 시간 확보 (2-3시간)
 - 녹음기 준비
 - 구토 대비 용품
- 축사 명령(머리에 손을 얹고 강한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영들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성령의 불로 너희를 태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봉
인한다!"
- 단계별 진행
 - 귀신의 정체 파악: "네 이름이 무엇이나?"
 - 들어온 경로 확인: "언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 완전한 축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 성령 충만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c) 축하 후 관리

- 즉시 해야 할 일

- "이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 구원 기도를 시키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
- 제자훈련 필수
-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세요.
-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 재발 방지(마태복음 12:43-45 경고):

-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세요.
- 영적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2) 저주 끊기

a) 가계 저주

- 저주의 근원 파악

- "가족 중에 무당, 점쟁이가 있었습니까?"
- "우상숭배나 제사를 지냈습니까?"
- "가계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 저주 끊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 가문에 내려온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3대, 4대까지 이어진 저주가 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저주는 끝나고 축복이 시작
됩니다!”

b) 개인적 저주

- 자기 저주 끊기

“내가 스스로에게 한 모든 부정적 선언을 취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등 모든 자기 저주를
끊습니다.”

- 타인의 저주 끊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저주의 말을 무효화합
니다.

그 말은 땅에 떨어지고 효력을 잃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c) 축복으로 대체

- 축복 선포

“이제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님께 임합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3) 영적 억압

a) 억압의 영 대적

-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디모데후서 1:7 말씀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 미움과 용서못함

"미움의 영이여, 나가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마음에 충만하라!"

- 음란의 영

"음란의 영아,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가
라!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을 주소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나타나라!"

b) 영적 자유 선포

"이제 ○○님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1)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
서 3:17)"

4. 특수 상황의 치유 안수

가. 어린이 치유 안수

1) 어린이 안수의 특징

a) 단순한 믿음

-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자, 이제 예수님이 만져주실 거야."
- 복잡한 신학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b) 부모와 함께

- 가능하면 부모가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기도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 부모가 직접 안수하도록 지도:
"이렇게 아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 낫기를 명령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c) 짧고 구체적인 기도

- 어린이는 집중력이 짧으므로 기도도 짧게 합니다.

“예수님, ○○의 배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지금 아픈 것이 없어지고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야기나 비유를 사용:

“예수님이 의사선생님보다 더 잘 고치셔.

예수님 병원에서는 주사도 안 아프고 금방 나아.”

2) 연령별 접근

a) 영유아 (0-3세)

- 부드러운 접촉
 -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기도
 - 부모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 선포 기도

“○○야,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아픈 것이 다 나가고 건강해질 거야.

예수님이 ○○를 사랑하셔.”

b) 유치원생 (4-6세)

- 참여형 기도

"○○야, 선생님 따라 해볼래?"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아픈 것아, 나가라!"

"이제 나았어요! 감사해요!"

- 시각적 표현

"자, 이제 예수님의 빛이 네 몸에 들어가는 거
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픈 곳을 다 고쳐주고
있어."

c) 초등학생 (7-12세)

- 논리적 설명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아이들을 고쳐주셨
어.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고쳐주실 수 있어.

너도 믿으면 나을 수 있어."

- 적극적 참여

"네가 직접 아픈 곳에 손을 얹어봐.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낫습니다'라고 말해
봐."

3) 어린이 특수 질환

a) 발달 장애

- 자폐증(부드럽고 반복적인 기도):
"예수님이 ○○의 뇌를 만지십니다.
모든 신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 말을 잘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잘 놀게 됩니다."
-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기도합니다.
- 작은 변화도 기록하고 감사합니다.

b) 선천성 질환

-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수리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정상이 될 것입니다."
- 부모 격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c) 소아암

- 용기 주기
"○○는 용감한 전사야!
예수님과 함께 암을 물리칠 거야!
암세포는 악하고 ○○는 강해!"

- 치료 과정 축복
"항암치료도 잘 견디게 하소서.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죽게 하소서.
빠른 회복과 완치를 선포합니다."

나. 원거리 치유 안수

1) 전화 안수 기도

a) 전화 안수의 성경적 근거

- 마태복음 8:8 백부장의 믿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 예수님도 거리에 관계없이 치유하셨습니다.
- 전화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b) 전화 안수 방법

- 환경 준비
 - 조용한 장소 확보
 - 스피커폰 사용 권장
 - 충분한 시간 확보
- 실제 진행
"지금 제가 전화를 통해 안수하겠습니다.
○○님도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그 손을 통해 치유 능력이 전달됩니다.”

- 기도: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님께 임하십니다.

제가 직접 안수하는 것처럼 능력이 전달됩니다.”

c) 믿음 강화

“○○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뜨거움이나 시원함을 느끼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느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통증이 줄어들었습니까?”

“몸을 움직여 보세요.”

“10점 만점에 지금 통증이 몇 점입니까?”

2) 영상 통화 안수

a) 영상 통화의 장점

- 얼굴을 보며 기도
- 상태 직접 확인
- 동작 지시 가능
- 더 강한 연결감

b) 영상 안수 방법

- 화면 설정
"카메라를 잘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전신이 보이면 더 좋습니다.
아픈 부위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안수 시뮬레이션
"제가 화면에 손을 대겠습니다.
○○님도 화면에 손을 대세요.
이 연결을 통해 치유 능력이 전달됩니다."
- 실시간 확인
"자, 이제 일어서 보세요."
"팔을 들어보세요."
"걸어보세요."
-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격려합니다.

3) 대리 안수

a) 대리 안수의 원리

- 마태복음 8:13 백부장의 하인 치유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상황
 - 의식이 없는 환자
 - 어린 아기
 - 정신 질환자
 - 멀리 있는 가족

[마 8:13] 예수께서 백부
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b) 대리 안수 방법

- 대리인 준비

"○○님을 대신하여 안수받겠습니다.

제가 받는 치유가 ○○님에게 전달됩니다."

- 대리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의 치유를 확신합니까?"

"○○를 대신하여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 안수 진행(대리인에게 안수하며):

"이 안수가 ○○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 치유받고 있습니다.

○○의 몸에 동일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c) 물건을 통한 전달

- 사도행전 19:12 바울의 손수건처럼

- 손수건에 안수하며 기도:

"이 손수건에 치유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가 이것을 만질 때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 기름 부은 천(올리브유를 천에 바르고 기도):

"이 기름이 성령의 임재를 전달하게 하소서.

아픈 곳에 대면 즉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행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약귀도 나가더라

다. 집단 치유 안수

1) 치유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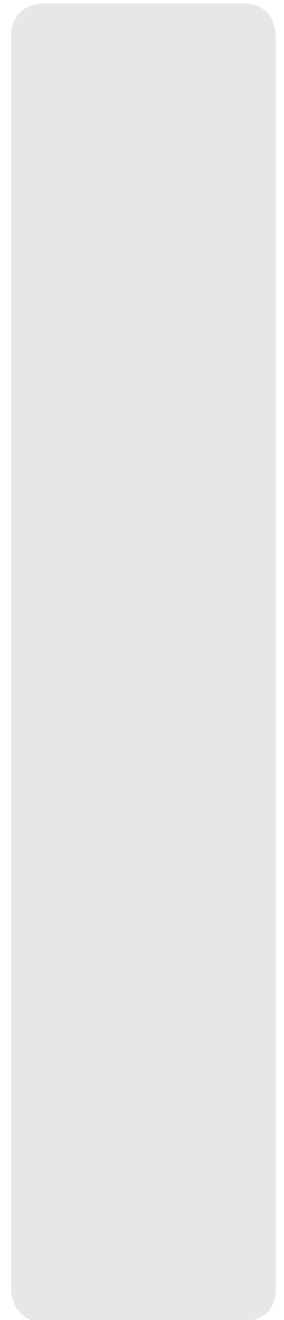
a) 집회 진행

- 찬양과 경배 (30-40분):치유와 능력의 찬양
 -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 "능력의 이름 예수"
 - "치료하는 여호와"
- 말씀 선포 (30분):치유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
 - 예수님의 치유 사역
 - 치유의 약속
 - 간증 사례
- 집단 안수 (40-60분)
"이제 모두 일어서세요.
아픈 곳에 자신의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받으세요."

c) 확인과 간증

- 즉각 확인
"방금 치유받은 분 손드세요!"
"통증이 사라진 분?"
"종양이 줄어든 분?"
- 간증 시간
 - "앞으로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 의료 기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작은 치유도 간증하게 합니다.







5 장

/

안수기도의 실제와 적용

제 5 장 안수기도의 실제와 적용

훈련 목적

- * 개인과 교회에서 안수 사역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습득한다
- * 안수 사역의 윤리적 원칙과 실제적 주의사항을 완전히 이해한다
- * 안수 사역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 * 안수 사역 팀을 구성하고 훈련시키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디모데전서 4: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가 네게 안수할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보조 구절: 히브리서 6:2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1. 안수 기도 of 시작과 개발

가. 개인 안수 사역 시작하기

1) 부르심의 확인

a) 내적 부르심

- 안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 내적 부르심의 징표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긍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안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 둘째, 안수하여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수할 때 손에서 열기를 느끼거나,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수 사역으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셋째, 안수 기도 후에 실제로 응답과 열매가 나타납니까? 작은 것이라도 치유나 회복,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b) 외적 확인

-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외적 확인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 먼저 영적 지도자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나 영적 멘토에게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안수 사역에 부르심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분별과 지도를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당신의 안수 기도를 요청하니까? 당신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까? 이러한 외적 증거들은 부르심을 확증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 또한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와 지원이 없다면 사역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c) 은사의 개발

- 부르심이 확인되면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 기도 생활 강화:
 - 매일 최소 2시간 이상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고, 특별히 안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 "주님, 오늘도 아픈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 말씀 연구
 - 안수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 연구하십시오.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수가 언급된 모든 구절을 노트에 정리하고 묵상하십시오.
 -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안수 사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십시오.
- 실습과 훈련
 -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경험을 쌓으십시오.
 - 가족의 두통이나 복통을 위해 안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십시오.

2) 사역 준비 과정

a) 영적 준비

- 안수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령 충만
 - 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18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실천하십시오.

- 실제적인 방법:
 -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 방언 기도 30분 이상
 - 찬양과 경배로 임재 초청
 -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
- 거룩한 삶
 - 안수하는 손이 거룩해야 거룩한 능력이 흐릅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점검 사항:
 - 숨겨진 죄는 없는가?
 -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가?
 -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3) 첫 사역 시작

a) 가족부터 시작

- 안수 사역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축복 안수(매일 저녁 자녀를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 "사랑하는 ○○야, 아빠(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축복한다."
-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자녀들이 안수 기도 에 익숙해지고, 부모도 안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 배우자를 위한 안수(배우자가 피곤하거나 아플 때 안수 기도를 제안하십시오)
 - "여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잠깐 기도해 줄게요."
 -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 부모님 안수
 -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안수 기도하십시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수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 교회 내 사역

- 가족 안수가 익숙해지면 교회 내에서 사역을 확대합니다.
- 구역 모임에서(구역 모임 후 기도 시간에 안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 "○○ 집사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수 기도 드려도 될까요?"

- 새벽기도 후(새벽기도 후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제안하십시오)
 -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 심방 동행
 -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심방에 동행하여 안수 기도로 섬기십시오. 이것은 좋은 훈련 기회가 됩니다.

2. 안수 사역의 윤리와 주의사항

가. 윤리적 원칙

1) 기본 윤리 규정

a) 정직과 진실

- 안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정직입니다.
- 과장 금지
 - "100% 낫습니다"라는 보장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십시오.
 - 거짓 간증을 만들거나 과장하지 마십시오. 실제 일어난 일만 정확히 전하십시오. "완

치"보다는 "호전", "기적"보다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투명성

- 사역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십시오.
- 실패 사례도 숨기지 마십시오. "모든 경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b) 겸손과 섬김

- 교만 경계

- "내가 치유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나는 단지 통로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 성공 사례가 많아져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고백한 것처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늘 인정하십시오.

- 섬기는 자세

- 안수받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나이, 지위,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허리를 굽혀
가며 낮은 자세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c) 사랑과 긍휼

- 진정한 사랑
 - 형식적인 안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
을 사랑하고 아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것이 때로는 기도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 안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
오. 전화로 안부를 묻고, 계속 기도하고 있
음을 알려주십시오.
- 무조건적 수용
 - 어떤 죄인도, 어떤 병자도 거부하지 마십
시오. 에이즈 환자, 정신병자, 전과자도 동
일한 사랑으로 안수하십시오.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
각하십시오.

2) 성윤리

a) 이성 간 안수 원칙

- 기본 원칙
 - 가능한 한 동성이 안수하도록 하십시오.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안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하게 이성에게 안수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단둘이 있지 마십시오.

- 신체 접촉 제한

- 이성에게 안수할 때는 머리카락이나 어깨에만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 배, 허리 등 민감한 부위는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 필요한 경우 손을 띄워서 기도하거나, 손수건을 사이에 두고 안수하십시오.

- 복장 주의

- 안수할 때 단정한 복장을 하십시오. 여성은 너무 짧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고, 남성도 깔끔한 복장을 유지하십시오.

b) 독대 금지

- 2인 1조 원칙

- 항상 2인 1조로 사역하십시오. 특히 이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동역자가 없을 때는 사역을 연기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만 하십시오.

- 장소 선택

- 밀폐된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시오. 문을 열어놓거나 유리문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십시오.

- 개인 집이나 호텔 등 오해받을 수 있는 장소는 피하십시오.

c) 관계 관리

- 적절한 거리 유지

- 안수 사역을 통해 친밀해져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적인 만남이나 개인적 관계로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 특히 이성과는 더욱 조심스럽게 경계를 지키십시오. 카톡이나 문자도 절제하십시오.

- 전문적 관계

- 사역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지나친 의존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필요하면 다른 사역자에게 인계하십시오.

3) 재정 윤리

a) 무료 사역 원칙

- 대가 요구 금지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는 말씀을 따라 안수는 무료로 해야 합니다.

-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면 더 잘 낫는다"는 식의 암시도 하지 마십시오.
- 자발적 헌금
 - 교회 차원의 헌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모든 헌금은 교회 회계를 통해 처리하십시오.
 - 헌금을 강요하거나 액수를 정하지 마십시오.

b) 선물 처리

- 개인 선물에 대한 예의
 -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축복기도를 해 주십시오.
 - 감사 선물에 대한 헌금을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c) 사역 비용

- 필요 경비
 - 기름, 손수건 등 필요한 물품은 교회 예산으로 구입하십시오.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 받으십시오.
 - 외부 사역 시 교통비와 식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실제적 주의사항

1) 의료적 주의사항

a) 의료 행위 금지

- 진단 금지

- 의사가 아닌 이상 병명을 진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암입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라고 권하십시오.
- 증상을 보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같은 표현도 피하십시오.

- 처방 금지

- 약을 권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독이니 끊으세요"라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도 권하지 마십시오. 의료적 조언은 의사에게 맡기십시오.

b) 의료 협력

- 병원 진료 권장

- "믿음으로만 낫는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함께 병원 치료도 받으세요"라고 권하십시오.

-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학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 의료진과 협력
 - 가능하면 크리스천 의료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 의료진을 적대시하지 말고 협력 파트너로 여기십시오.

2) 법적 주의사항

a) 법적 한계 인식

- 의료법 준수
 - 한국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수 기도는 종교 행위이지 의료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시오.
 - "이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종교적 기도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 책임 한계
 - 안수 기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설명하십시오.

b) 문서화

- 동의서 작성

[안수 기도 동의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 안수 기도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2.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4.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날짜:

이름:

서명:

3) 영적 주의사항

a) 영적 분별

- 거짓 영 분별: 모든 영적 현상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 예수 이름으로 시험
 - 열매로 판단
 - 말씀과 대조
 - 다른 사역자 의견
- 과도한 현상 주의

- 쓰러지고, 웃고, 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보다 변화와 열매가 중요합니다.
- 현상을 만들려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밀거나 암시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b) 영적 보호

- 자기 보호

- 안수 사역자도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 매일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 팀 보호

- 팀원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 사역 전후 팀 기도:

- "주님, 우리 팀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c) 영적 균형

- 은사주의 경계

- 은사만 강조하고 말씀과 성품을 소홀히 하

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 기적과 표적만 추구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십시오.
- 극단주의 경계
 - "안수만 받으면 다 낫는다"는 극단적 주장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인정하십시오.
 -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십시오. 안수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6 장

/

안수기도의 미래와 비전

제 6 장 안수기도의 미래와 비전

훈련 목적

- * 21세기 안수사역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탐구한다
- *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안수 사역이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 * 안수사역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주 구절: 요엘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1. 시대적 변화와 안수 사역

가. 현대 사회의 도전과 기회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a) 비대면 시대의 안수 사역

- 코로나19 팬데믹은 안수 사역에 큰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제한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안수 기도의 정착
 -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사역 방법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 실제로 해외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서 격리된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안수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하이브리드 사역 모델
 -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안수하고, 온라인으로는 동시에 중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개인주의 문화 속의 공동체적 안수

- 현대인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안수 사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개인 맞춤형 사역
 - 일대일 개인 안수 기도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은밀한 안수 기도는 더 효과적입니다. 예약제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상담과 안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그룹 안수 모임
 - 대규모 집회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에서의 안수를 선호합니다. 5-10명 정도의 작은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친밀하고 효과적입니다.

c) 과학 시대의 영적 갈망

- 과학이 발달할수록 역설적으로 영적 갈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의학의 한계 인식
 - 현대 의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도 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 치유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 전인적 치유 추구
 -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정신적, 영적, 사회적 치유를 원합니다. 안수 사역은 이런 전인적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 다종교 사회에서의 안수 사역

a) 종교 간 대화와 협력

- 한국은 이미 다종교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안수 사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배타성 극복
 - “오직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접근할 때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 공통분모 찾기
 - 치유와 회복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 이런 공통분모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b) 뉴에이지와의 구별

- 다양한 영성 운동이 활발한 시대에 기독교 안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성경적 근거 강조
 - 우리의 안수는 에너지 치유나 기(氣) 치료와 다릅니다.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안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차별력 교육
 - 성도들이 비성경적인 치유 방법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레이키, 차크라, 요가 치유 등과 기독교 안수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c) 문화적 상황화

- 각 문화권에 맞는 안수 사역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 한국적 정서 이해
 - 한국인들은 정(情)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관심이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안수가 아닌 정이 담긴 안수가 필요합니다.
- 세대별 접근
 - MZ세대는 권위적인 방식을 거부합니다. 수평적이고 친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노년층은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안수

를 선호합니다.

3) 4차 산업혁명과 안수 사역

a) 기술의 활용

- 새로운 기술을 안수 사역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AI를 활용한 상담
 - AI 챗봇을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상 분석, 기도 제목 정리, 성경 구절 추천 등을 AI가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안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
 - 축적된 치유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사역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어떤 접근이 효과적인지, 최적의 기도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VR/AR 기술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 더 몰입감 있는 안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안수나 선교지 안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b)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 디지털 원주민인 젊은 세대를 위한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 SNS 안수 사역
 -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짧고 강력한 안수 기도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1분 안수 기도, 릴스 간증 등 새로운 형식을 시도합니다.
- 게이미피케이션
 - 안수 사역 훈련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벨업, 배지,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c) 메타버스 시대의 안수

-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안수 사역이 가능할까요?
- 가상 교회에서의 안수
 - 메타버스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지만 영적 연결은 가능합니다.
- 새로운 공동체 형성
 -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안수 사역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 한국 교회와 안수 사역

1) 한국 교회의 영적 유산

a) 한국 교회의 안수 전통

- 한국 교회는 독특한 안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새벽기도와 안수
 -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새벽기도 후 안수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 통성기도와 안수
 - 뜨거운 통성기도와 함께하는 안수는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기도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 금식기도와 안수
 - 한국 교회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과 함께하는 안수는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다음 세대에도 전수해야 합니다.

b) 부흥의 역사와 안수

-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안수 사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 1907년 대부흥
 - 평양 대부흥 때도 안수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회개와 함께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 1970-80년대 부흥
 - 이 시기 많은 치유 집회가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c) 한국적 영성과 안수

- 한국인의 영성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 한(恨)의 정서
 - 한국인의 한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안수를 통한 내적 치유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 정(情)의 문화
 - 따뜻한 정이 담긴 안수는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습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마음이 담긴 안수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성
 -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은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함께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2) 한국 교회의 과제와 안수 사역

a) 교회 성장 정체와 안수 사역

- 한국 교회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수 사역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체험 중심 신앙
 - 젊은 세대는 체험을 원합니다. 안수를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은 신앙을 확고하게 합니다.
- 필요 중심 접근
 - 사람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안수 사역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 소그룹 활성화
 - 구역과 셀 모임에서 안수 사역을 활성화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b) 세대 간 통합

- 안수 사역을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안수
 - 어른이 젊은이를 축복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세대를 연결합니다.

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 가족 안수 문화
 - 가정에서 안수하는 문화를 만들면 가족이 하나 되고 신앙이 전수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축복하는 것이 신앙 계승의 통로가 됩니다.

c) 사회적 신뢰 회복

-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진정한 섬김의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 무료 봉사
 - 대가 없는 안수 사역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여줍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 투명한 운영
 - 안수 사역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전하는 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 사회 봉사와 연계
 - 병원,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안수 봉사를 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3) 한국 교회의 세계적 사명

a) K-안수 사역의 가능성

- 한류처럼 한국의 안수 사역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 한국 교회의 강점
 - 뜨거운 기도의 열정
 -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 풍부한 경험과 간증
 - 헌신적인 사역자들
-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안수 사역을 배우려 합니다. 특히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한 영적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b) 선교와 안수 사역

- 안수 사역은 강력한 선교 도구입니다.
- 의료 선교와 결합
 - 의료 선교와 안수 사역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큼니다. 의학적 치료와 영적 치유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 현지인 훈련
 - 선교지 현지인들을 안수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c)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전 세계 안수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국제 안수 사역 연합
 - 각국의 안수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24시간 중보기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한국에서 국제 안수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자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 미래 사회와 안수 사역

1) 인구 변화와 안수 사역

a) 초고령 사회

-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 노인 전문 안수 사역
 -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치매, 우울증, 고독감 등

에 초점을 맞춘 사역입니다.

- 요양 시설 사역
 - 요양원, 실버타운 등에서의 정기적인 안수 사역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적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 죽음 준비 사역
 -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한 안수 사역도 중요합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b) 저출산과 안수 사역

- 저출산 시대에 안수 사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 난임 부부 사역
 -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태교 안수
 - 임신부를 위한 안수 사역도 중요합니다.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c) 1인 가구 증가

-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개인 맞춤 사역

-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해하는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으로 연결된 안수 기도 커뮤니티를 만들어 언제든지 기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신건강 시대의 안수 사역

- a) 우울증 팬데믹
 -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 내적 치유 중심
 - 육체적 치유보다 정신적, 감정적 치유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상처, 두려움을 다루는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 돌봄
 - 정신건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 b) 중독 사회
 - 다양한 중독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독 치유 전문화
 -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각

중 중독에 특화된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
 - 중독 회복 프로그램과 안수 사역을 결합하여 전인적 치유를 제공합니다.

c) 스트레스 관리

-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 예방적 안수
 -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안수 사역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안수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 안수 사역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안수 사역이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안수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장

/

안수기도문 모음

제 7 장 안수기도문 모음

훈련 목적

- *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수기도문을 활용한다
- * 각 기도문은 기본틀을 제공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 * 기도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믿음으로 읽는 연습을 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일반 축복 안수기도문

가. 기본 축복 기도문

1) 종합 축복 기도

일반적인 축복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지으시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 종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 아침 축복 기도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오늘도 주님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계략에서 지켜주시며,

천사를 보내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저녁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저녁 축복 기도

하루를 마치며 드리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는 이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 쉬는 이 밤,

주님의 평안이 이 종을 덮어 주시고,

악한 꿈과 불안한 생각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평안히 눕고 잠들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연령별 축복 기도문

1) 어린이 축복 기도

a) 영유아 축복 (0-3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아기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모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자라나며,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에서 지켜주시며,
평생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유치원생 축복 (4-6세)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께로 나아온 (이름)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착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며,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어린이가 되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c) 초등학생 축복 (7-12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라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
게 하소서.
배우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게 하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며,
왕따나 학교폭력에서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청소년 축복 기도

a) 중학생 축복

청소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춘기를 지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는 이 아이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학업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좋은 친구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게 하소서.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품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소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고등학생 축복

젊은이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이름)을 축복합니
다.
입시의 압박과 진로의 고민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디모데처럼 젊은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공부할 때 집중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시험 볼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성 교제에 있어서도 순결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기다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평생의 신앙 기초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청년 축복 기도

a) 대학생/취준생 축복

청년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모든 결정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학업과 취업 준비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가게 하소서.
스펙 쌓기와 경쟁에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소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리더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직장 초년생 축복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회생활을 시작한(이름)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듯이
이 종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일과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하며,
받는 월급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알
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인생 전환기 축복 기도문

1) 결혼 축복 기도

- a)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축복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함같이 순복하게 하소서.
결혼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게 하시며,
모든 준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가정의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신혼부부 축복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 가정을 시작한 이 부부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대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신혼의 단꿀같은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가게 하시며,
서로 의논하며 결정하는 지혜를 주소서.
양가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서로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출산과 육아 축복 기도

a) 임산부 축복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품은 (이름)을 축복합니다.
태중의 아기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소서.
임신 기간 동안 산모를 보호하시고,
입덧과 피로감을 이기는 힘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태교를 통해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소서.

출산의 때를 주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며,
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출산 후 산모와 아기 축복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건강한 아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기를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듯이
주님께 드리며 평생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소서.
산모의 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유 수유의 은혜를 주시며,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며 순하게 자라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소서.
이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기로 인해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은퇴와 노년 축복 기도

a) 은퇴자 축복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은퇴를 맞이한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일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인생 2막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게 하소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남은 생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노년 축복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소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날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히 치매로부터 보호하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손주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기도로 가족을 지키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치유 안수기도문

가. 일반 질병 치유 기도문

1) 종합 치유 기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
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
다고 하셨으니,
그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종에게 임하게 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모든 질병의 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병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하시며,
온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의사들의 손을 사용하사 치료하시고,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시며,
부작용 없이 빠른 회복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치유받은 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2) 급성 질환 치유 기도

a) 감기/독감 치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감기(독감)로 고생하는 (이름)을 치료하여 주소서.
열이 내리게 하시고,
기침과 콧물이 멈추게 하시며,
목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며칠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복통/소화불량 치유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
복통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만져주소서.
위장과 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하게 하소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개선하게 하시며,
건강한 위장을 유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만성 질환 치유 기도

a) 고혈압 치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고혈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름)을 치유하소서.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의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하소서.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있게 하시며,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하시고,
심장이 건강하게 뛰게 하소서.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하시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하소서.
약을 복용중이라면 잘 듣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혈압이 조절되게 하시며,
점차 약을 줄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당뇨병 치유

전능하신 하나님,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여 주소서.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시며,
혈당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하소서.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로 유지되게 하시고,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에 있게 하소서.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눈, 신장, 신경, 혈관을 지켜주시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소서.

식이요법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하시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중증 질환 치유 기도문

1) 암 치유 기도

a) 일반 암 치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암으로 싸우고 있는 (이름)을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암세포는 죽을지어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소멸될지어대!
전이는 중단되고 종양은 줄어들지어대!
정상 세포는 보호받고 강화되게 하시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시
며,
온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시
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게 하시며,
정상 세포는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를 확신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
멘.

b) 항암 치료 중 기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항암 치료중인 (이름)과 함께하여 주소서.
항암제가 암세포만 정확히 공격하게 하시고,
정상 세포는 보호하여 주시며,
치료 효과는 극대화되게 하소서.
구토와 메스꺼움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탈모가 적게 일어나게 하시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
치료받는 동안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의료진을 신뢰하게 하시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소서.
매 치료마다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검사 결과가 계속 호전되게 하시며,
완전한 관해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정신 질환 치유 기도

a) 우울증 치유

위로의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소서.
어둠의 구름이 걷히고 빛이 비추게 하시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소서.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시고,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뇌 기능을 회복시켜 주소서.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며,
찬양이 회복되게 하소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잘 듣게 하시고,
상담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불안장애/공황장애 치유

평강의 하나님,
불안과 공황으로 고통받는 (이름)에게 평안을 주
소서.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호흡이 편안하게 유지되게 하시며,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뛰게 하소서.
예기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시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뇌의 편도체가 안정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환경을 초월하여 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중독 치유 기도

a) 알코올 중독 치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알코올 중독으로 묶인 (이름)을 자유케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대!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지어대!
뇌의 중독 회로가 끊어질지어대!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금단 증상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하소서.
술로 채우려던 공허함을 주님으로 채우시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며,
술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
멘.

b) 게임/인터넷 중독 치유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게임(인터넷) 중독에 빠진 (이름)을 건져주소서.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게임이 주는 거짓 만족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진정한 성취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절제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시며,
건전한 취미 활동을 찾게 하소서.
현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소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즉각적 보상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게 하시며,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신체 부위별 치유 기도문

1) 머리 부분 치유

a) 두통/편두통 치유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두통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소서.
머리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뇌혈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며,
신경이 안정되게 하소서.
긴장성 두통이라면 근육이 이완되게 하시고,
편두통이라면 유발 요인이 제거되게 하시며,
군발성 두통이라면 주기가 끊어지게 하소서.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게 하시며,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눈 질환 치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이 불편한(이름)을 치유하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흐릿한 것이 선명해지게 하시며,
눈의 피로가 풀리게 하소서.
백내장이 있다면 수정체가 맑아지게 하시고,
녹내장이 있다면 안압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황반변성이 있다면 진행이 멈추게 하소서.
안구건조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눈물샘이 정상 작동하게 하시며,
눈이 촉촉하고 편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 종의 눈도 밝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몸통 부분 치유

a) 심장 질환 치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이름)을 치유하소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힘차게 뛰게 하시고,
부정맥이 있다면 정상 리듬을 회복하게 하시며,
심장 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하소서.
관상동맥이 깨끗하게 뚫리게 하시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며,
심장 근육이 건강하게 하소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게 하시며,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숨쉬기가 편안해지게 하시고,
가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위장 질환 치유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소서.
위염이 있다면 염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위궤양이 있다면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위산 역류가 멈추게 하소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속쓰림이 사라지게 하시며,
편안한 위장을 갖게 하소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제거되게 하시고,
위 점막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정상적인 위 기능을 하게 하소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시며,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관절과 뼈 치유

a) 관절염 치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대!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지어대!
관절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대!
연골이 재생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시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굳어진 관절이 유연해지게 하시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없게 하시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편하게 하시며,
걷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허리/척추 질환 치유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허리와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

소서.

빠들어진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게 하시고,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며,

눌린 신경이 풀리게 하소서.

허리 근육이 강화되게 하시고,

인대가 튼튼해지게 하시며,

척추를 든든히 지탱하게 하소서.

앉고 서고 걷는 모든 동작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하시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소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림 현상이 없어지게 하시며,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특별 상황 안수기도문

가. 영적 문제 해결 기도문

1) 영적 속박에서의 자유

a) 저주 끊기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
말로 인한 저주를 끊어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제 모든 저주는 무효가 되고
오직 축복만 임할지어대!
3대, 4대까지 이어진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시작되며,
후손들에게 축복만 전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b) 악한 영 대적 기도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명령합니다.
(이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대!
두려움의 영, 거짓말의 영, 음란의 영,
질병의 영, 죽음의 영, 미혹의 영,
분쟁의 영, 우울의 영은
모두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대!
이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악한 영도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한다.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싸시며,
영원토록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

2) 내적 치유 기도

a) 상처 치유 기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거절당함과 배신의 아픔,
학대와 폭력의 기억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소서.
그 상처받은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아파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주님의 품에서 위로받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며,
자유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트라우마 치유 기도

위로의 하나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름)을 치유하소서.
반복되는 악몽과 회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평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과거는 과거로 묻히게 하시며,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게 하소서.
무너진 안전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세상을 다시 신뢰하게 하시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관계 회복 기도

a) 부부 관계 회복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위기에 처한 이 부부를 회복시켜 주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시며,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상처 준 말과 행동을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게 하시며,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대화할 때 지혜를 주시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며,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부모-자녀 관계 회복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대화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심으로 소통하게 하시며,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꿈이 조화를 이루게 하
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인생 전환점 기도문

1) 중요한 결정을 위한 기도

a) 진로 결정 기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이름)을 인도하소서.
잠언 3장 5-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이 지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며,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선택한 길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배우자 선택 기도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
배우자를 찾는 (이름)을 인도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알아보게 하시며,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소서.
외모나 조건보다 믿음과 인격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
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하소서.
성급하지도 너무 신중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며,
때가 되면 분명한 확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시험과 도전 앞에서

a) 중요한 시험을 위한 기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험을 앞둔 (이름)과 함께하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이 종에게도 주시고,
열 배나 뛰어난 결과를 얻게 하소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시험장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시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하게 하소서.
긴장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는 것은 실수 없이 표현하게 하시며,
모르는 것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면접/발표를 위한 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면접(발표)을 앞둔 (이름)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모세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이 종에게도 적절한 말을 주시고,
지혜롭고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소서.
첫인상이 좋게 하시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게 하시며,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적절한 답변을 하게 하시며,
자신의 장점을 잘 표현하게 하소서.
면접관(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호감을 갖게 하시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

a) 이사/이민 축복 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이름/가정)을 축복합니
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가정도 주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소서.
새 집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소

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사업/개업 축복 기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듯이
이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영하게 하시고,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충성된 거래처를 연결시켜 주시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를 주시고,
결정할 일에 분별력을 주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소서.
번 돈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문

1) 임직자를 위한 기도

a) 장로 임직 기도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
장로로 세움받는 (이름)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과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집사 임직 기도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집사로 세움받는 (이름)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섬기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시며,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직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사역자를 위한 기도

a) 목회자 축복 기도

목자장 되신 예수님,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목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선교사 축복 기도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게 하시며,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외로움과 향수병을 이기게 하소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교회 부서와 모임을 위한 기도

a) 주일학교 교사 축복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대하게 하시며,
각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게 하소서.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기게 하시며,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열매를 보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찬양대 축복 기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게 하시며,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목소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연습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며,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 특수 목적 안수기도문

가. 직업별 축복 기도문

1) 학생과 교육자

a) 학생 축복 기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학업에 정진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이 학생에게도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배우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게 하소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할 때 암기력을 좋게 하시며,
시험 볼 때 실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학업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학생이 되게 하시며,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교사/교수 축복 기도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이름)을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와 지혜로 가르치게 하시며,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게 하소서.
수업 준비에 영감을 주시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시며,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발전하는 교육자가 되게 하시며,
제자들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의료인과 돌봄 종사자

a) 의사/간호사 축복 기도

치유의 하나님,
환자를 돌보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 도구가 되게 하소서.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감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며,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게 하소서.
과로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의료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요양보호사/간병인 축복 기도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육체적 힘과 정신적 인내를 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보람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사업가와 직장인

a) 경영자/사업가 축복 기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업을 운영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지혜로운 경영을 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쌓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칙대로 경영하게 하소서.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게 하시며,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며,
이웃과 나누는 기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직장인 축복 기도

일터를 주신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며,
상사에게 인정받게 하소서.
일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며,
탁월한 성과를 내게 하소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특별한 날 기도문

1) 절기와 기념일

a) 생일 축복 기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은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소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대 이상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결혼기념일 축복 기도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

결혼기념일을 맞은 이 부부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금혼식, 다이아몬드혼식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많은 가정에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교회 절기 기도

a) 부활절 축복 기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맞은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 성탄절 축복 기도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맞은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왕 되어 주시고,
매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긴급 상황 기도문

1) 응급 상황 기도

a) 수술 직전 기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수술을 앞둔 (이름)과 함께하소서.
집도의의 손을 주관하시고,
의료진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취가 안전하게 되게 하시고,
수술 중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고,
합병증이 없게 하시며,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위급한 환자를 위한 기도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름)을 살려주소서.
지금 이 순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시며,
의식이 돌아오게 하소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게 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 재난과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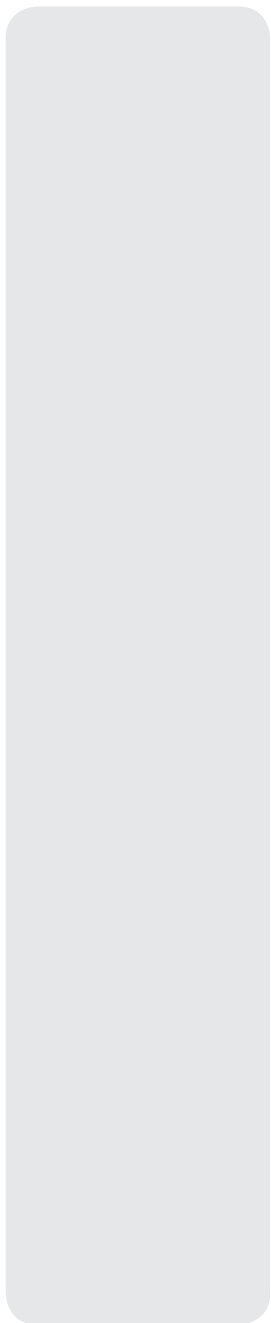
a) 자연재해 후 기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재난을 당한 (이름/지역)을 위로하소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게 하시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트라우마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이웃들이 서로 돕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이 공급되게 하시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교통사고 후 기도

보호자 되신 하나님,
사고를 당한(이름)을 치유하소서.
외상이 빨리 아물게 하시고,
내상이 있다면 발견되고 치료되게 하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소서.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 조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수기도반 교재

초판 발행 2025.9.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